

경험하는 미래, NEW 비영리

상상력으로 다시 쓰는 슬기로운 비영리

일시 2020.8.21(금) 14:00 ~ 17:00

진행 온라인 (이벤터스, 아산나눔재단 유튜브)

상상해오던 미래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래를 준비하고 움직일 수 있는 비영리가 되기 위해
왜 상상해야 하는지, 무엇을 상상해야 하는지,
상상하는 비영리가 되기 위해 필요한 환경은 무엇인지를
2020N_FORUM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Program

14:00-15:30 1부 경험하는 미래 강연 및 패널 대담

새로운 균형점과
초회복



연세대학교
최영준 교수

팬데믹에서 깨우치는
연대의 가치



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원장

데이터로 보는
한국인의 시민성



서울대학교
임동균 교수

‘경험하는 미래’
패널 대담

‘경험하는 미래’ 연사 3인 &
모데레이터 (라파엘인터내셔널 손정화 이사)

15:30-17:00 2부 New 비영리 강연 및 패널 대담

왜 지금
상상해야 하는가?



진지티프로젝트
서현선 대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만드는 캠페인



닷페이스
조소담 대표

플랫폼 조직의
가능성과 힘



인디스울
황정호 교수

비영리 조직으로
민주주의 플랫폼 만들기



빔피
권오현 대표

‘New 비영리’
패널 대담

‘New 비영리’ 연사 4인 &
모데레이터 (진지티프로젝트 서현선 대표)

새로운 균형점과 초회복

새로운
균형점을
향하여

수명이 다한 과거의 균형점

변화의 물줄기를 막았던

닫혀진 Window와 경로의존성

코로나19와

열린 Window와 새로운 균형점이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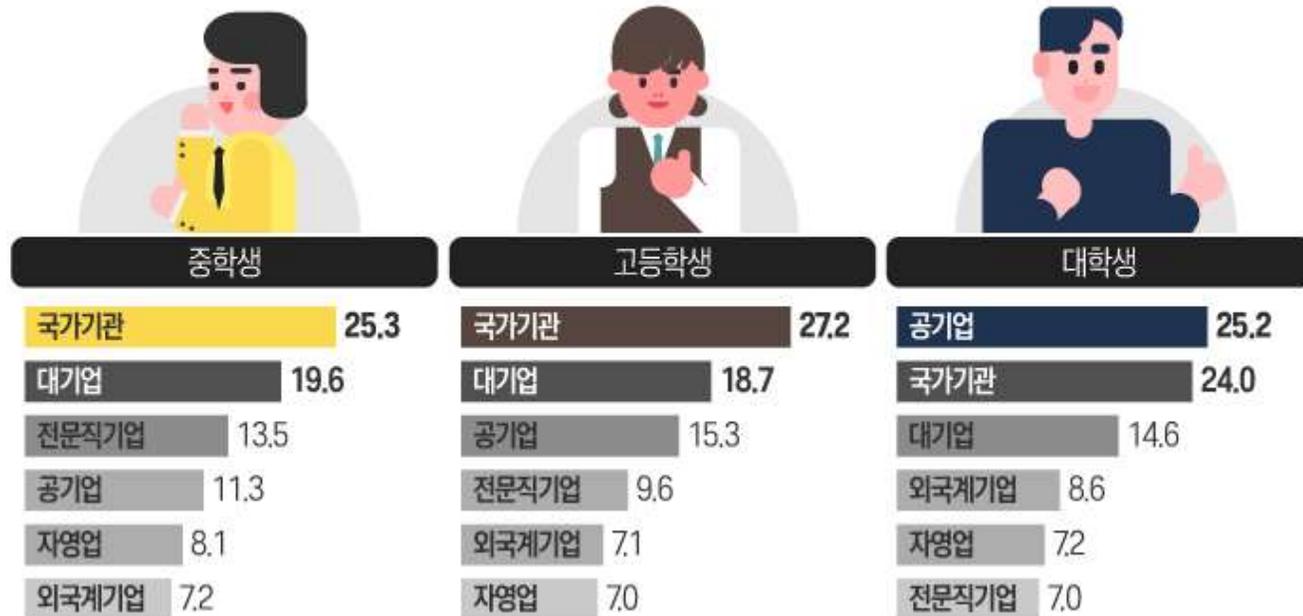
회복인가, 초회복인가

과거 균형점: 불안정성과 난제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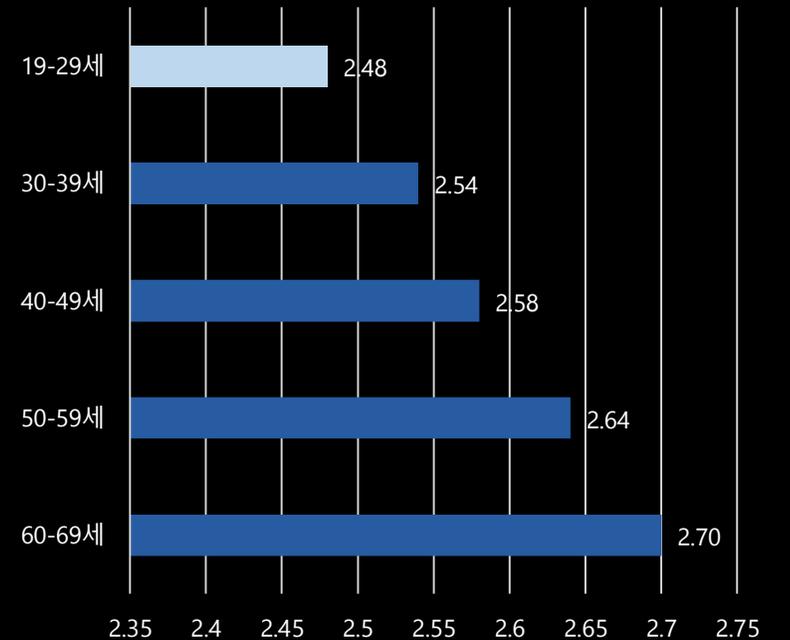
지표	OECD 순위	수치
노인빈곤율	1위 (2016)	43.8% (중위소득 대비 50%)
건강상태인식	1위 (2017)	29.5% (매우 좋음/ 좋음 응답비율)
출산율	1위 (2017)	1.05 (합계출산율)
여성고용률	7위 (2019)	57.9% (15-64세)
젠더임금격차	1위 (2017)	34.6 (남성임금과 격차)
근로시간	3위 (2018)	1998 (연간근로시간)
소득불평등	7위 (2017)	0.35 (GINI)

과거 균형점: 암울한 노동시장

청소년(13~24세)이 선호하는 직장(2017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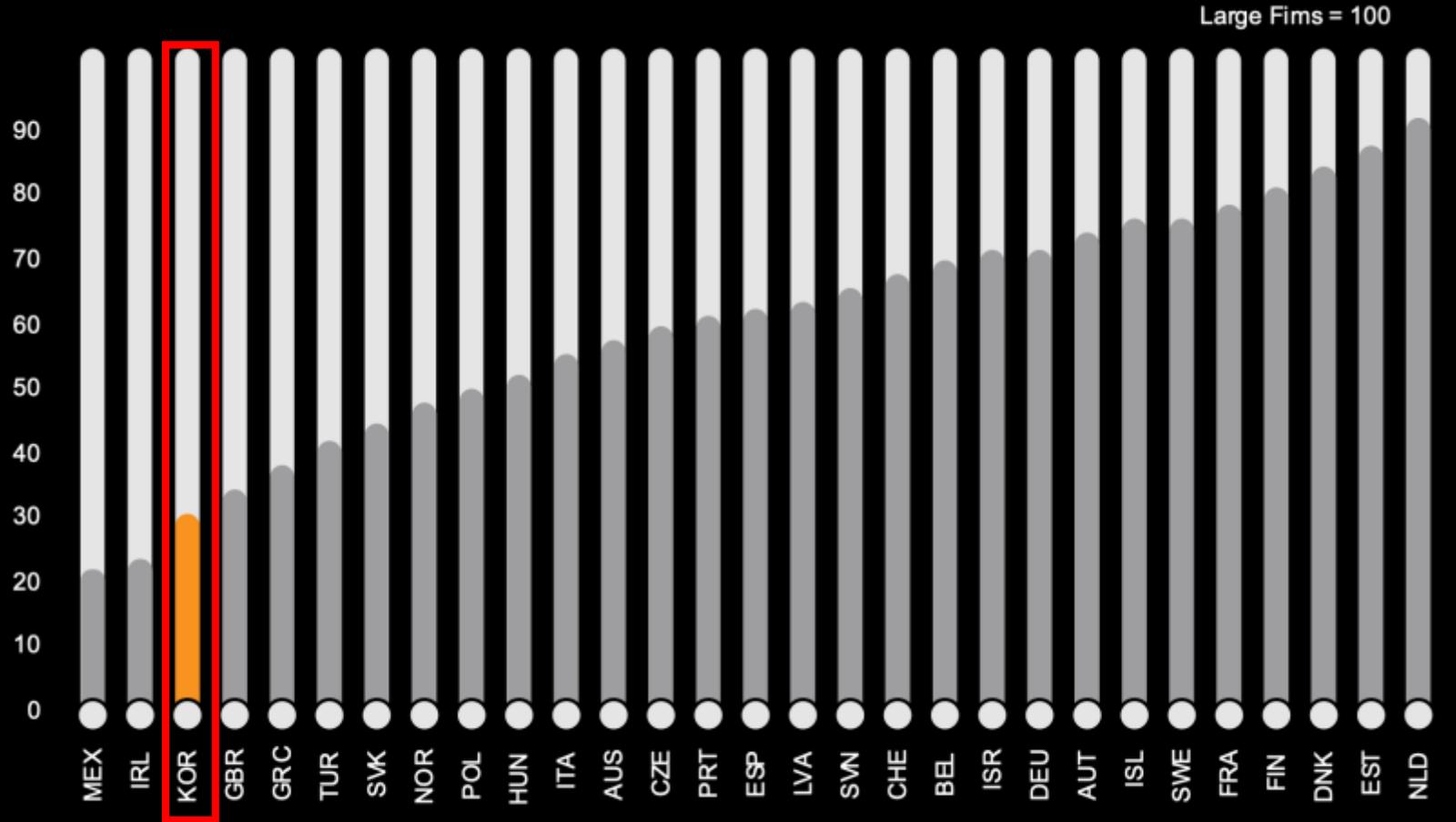


나는 창의적이다(4점 만점),
20대 후반=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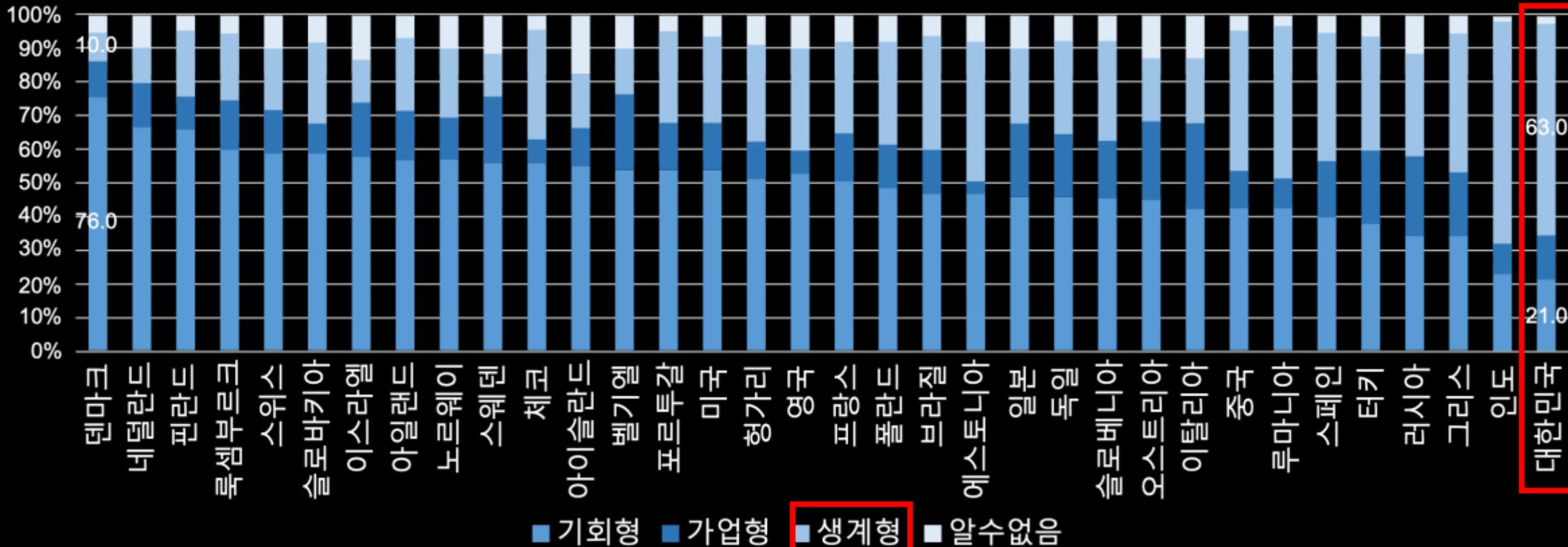


(LAB2050 자유와 안정 서베이 자료 분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높은 생산성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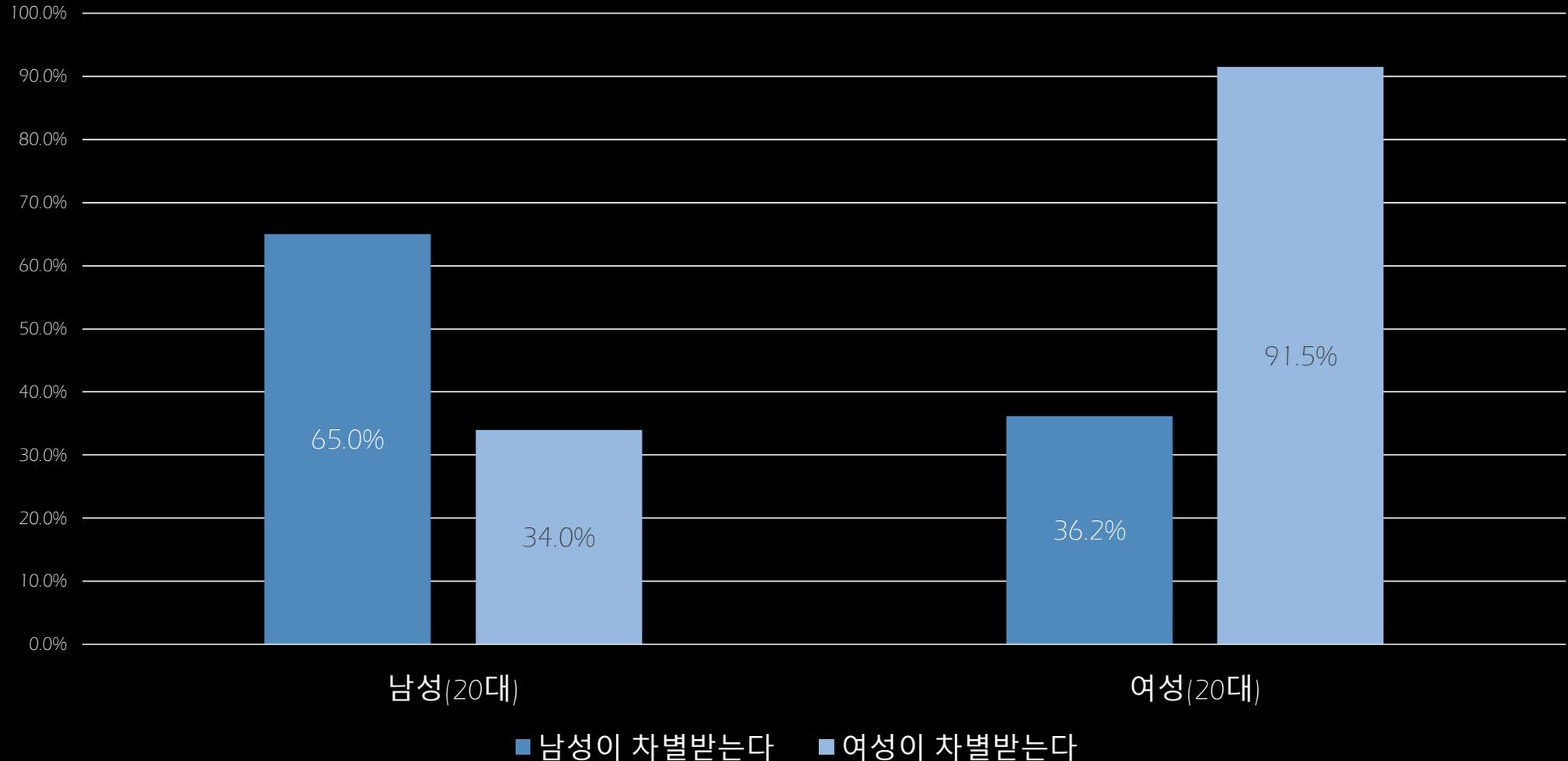


Source: OECD(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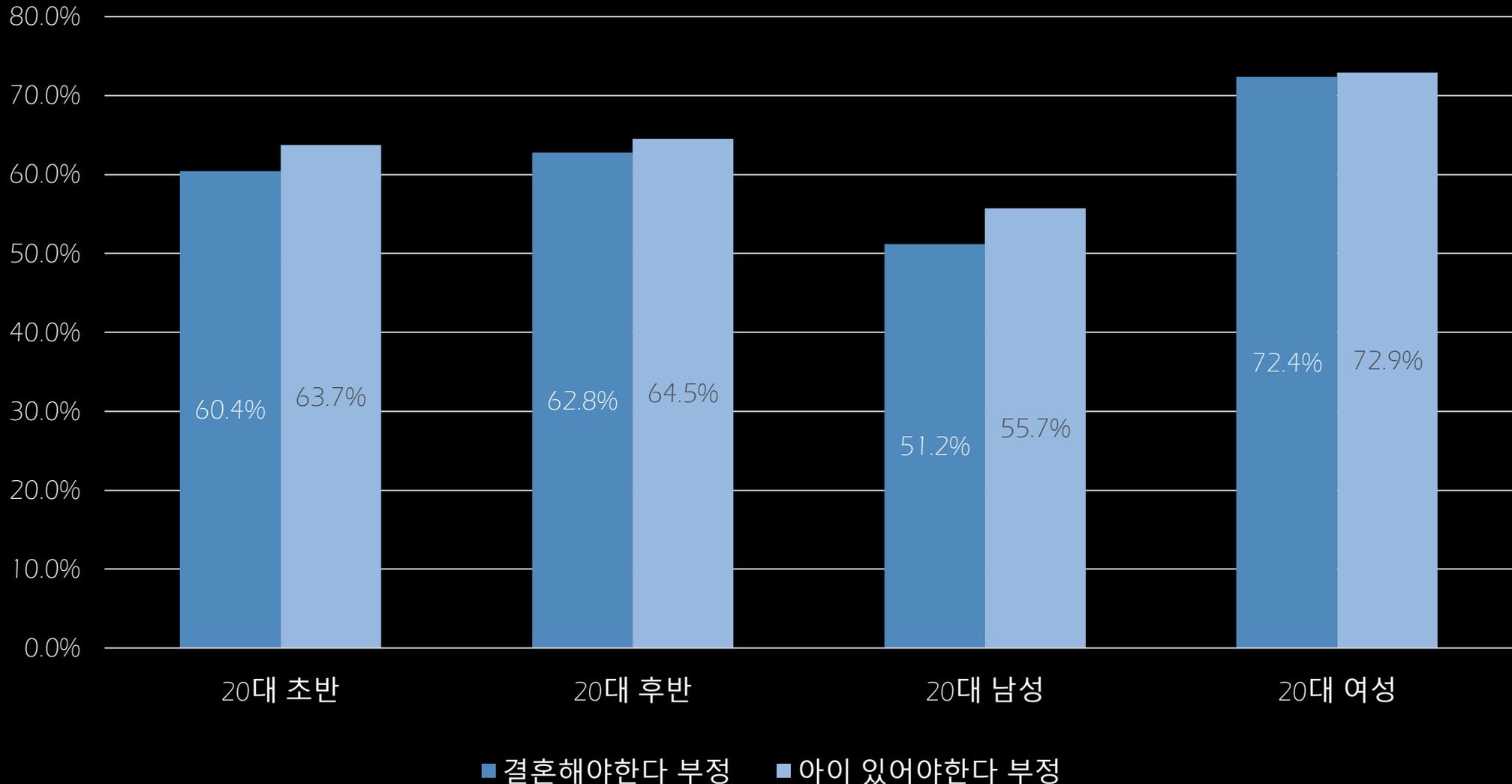


생계형 창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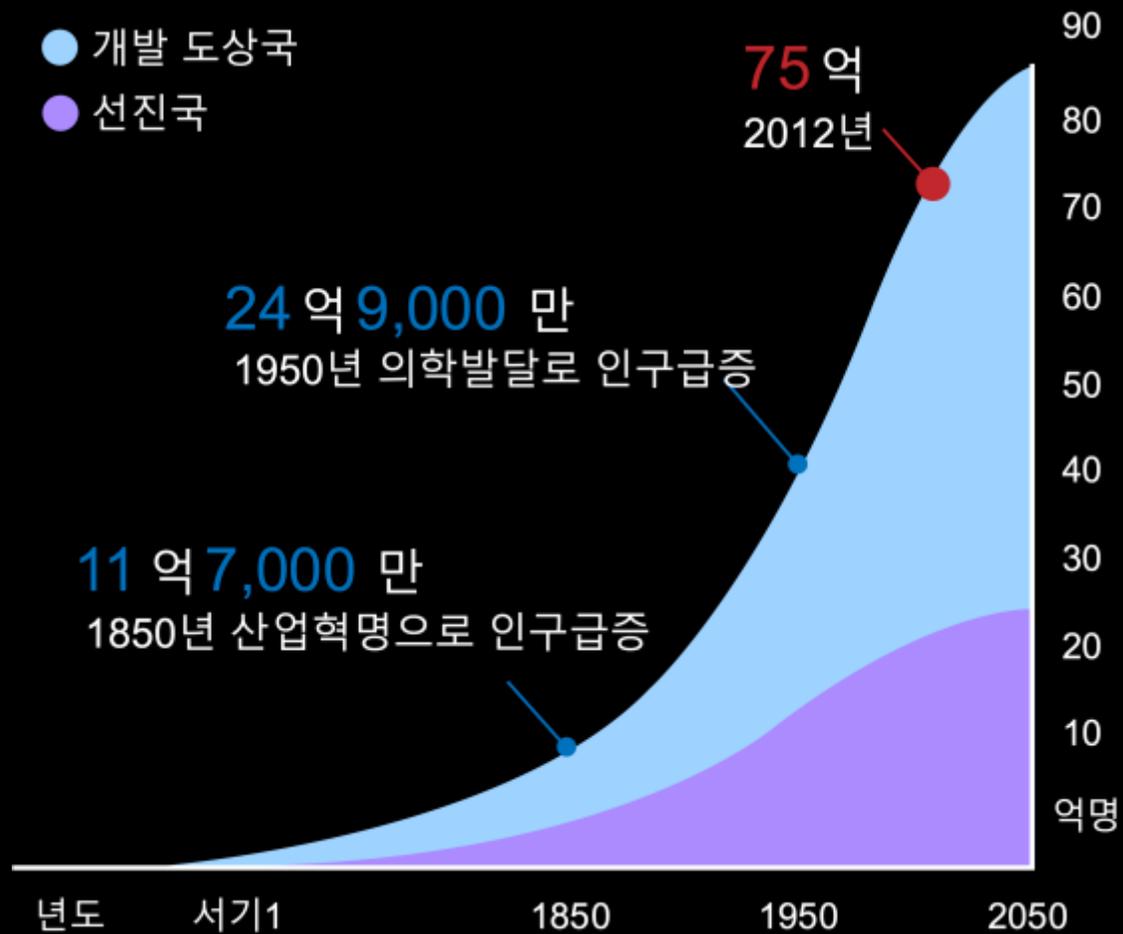
과거 균형점: 저출생과 디스토피아?



과거 균형점: 저출생과 디스토피아?



과거 균형점: 기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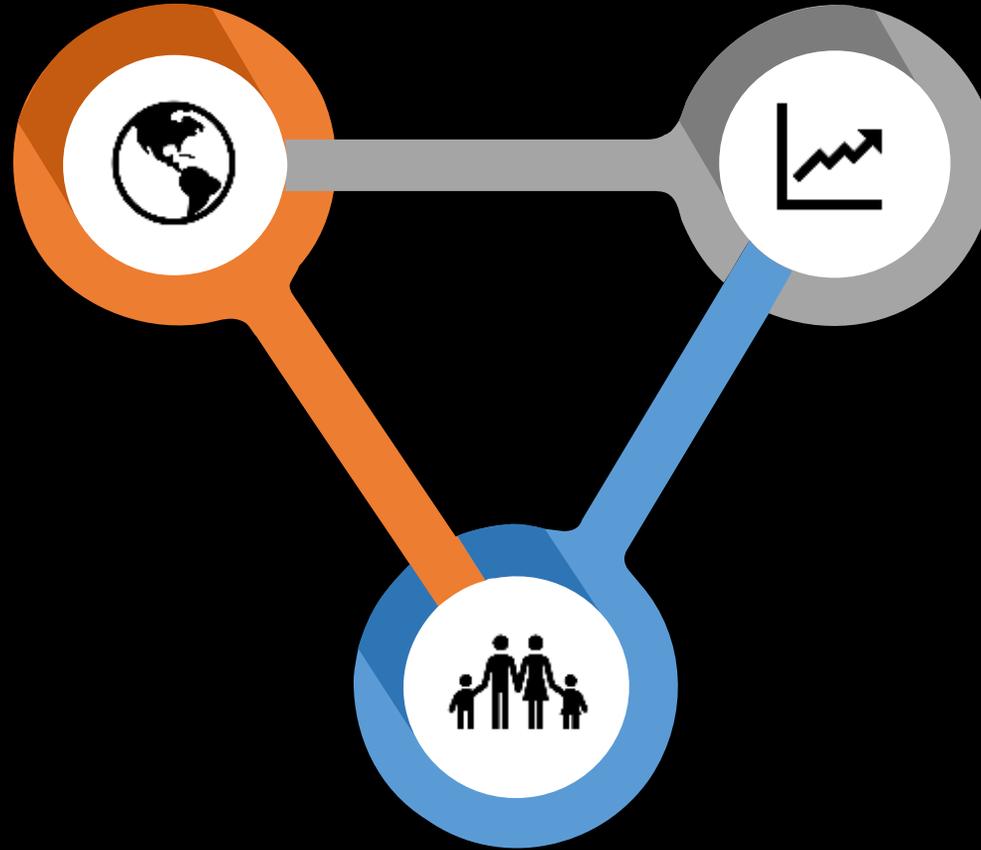
기존 제도들은 난제를 풀어내는가?

경제정책, 사회보장제도, 교육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환경정책.....

누가, 어디에서부터 문제를 풀 것인가

국가: 정치권력



시장: 경제권력

시민사회: 대중권력

국가와 시장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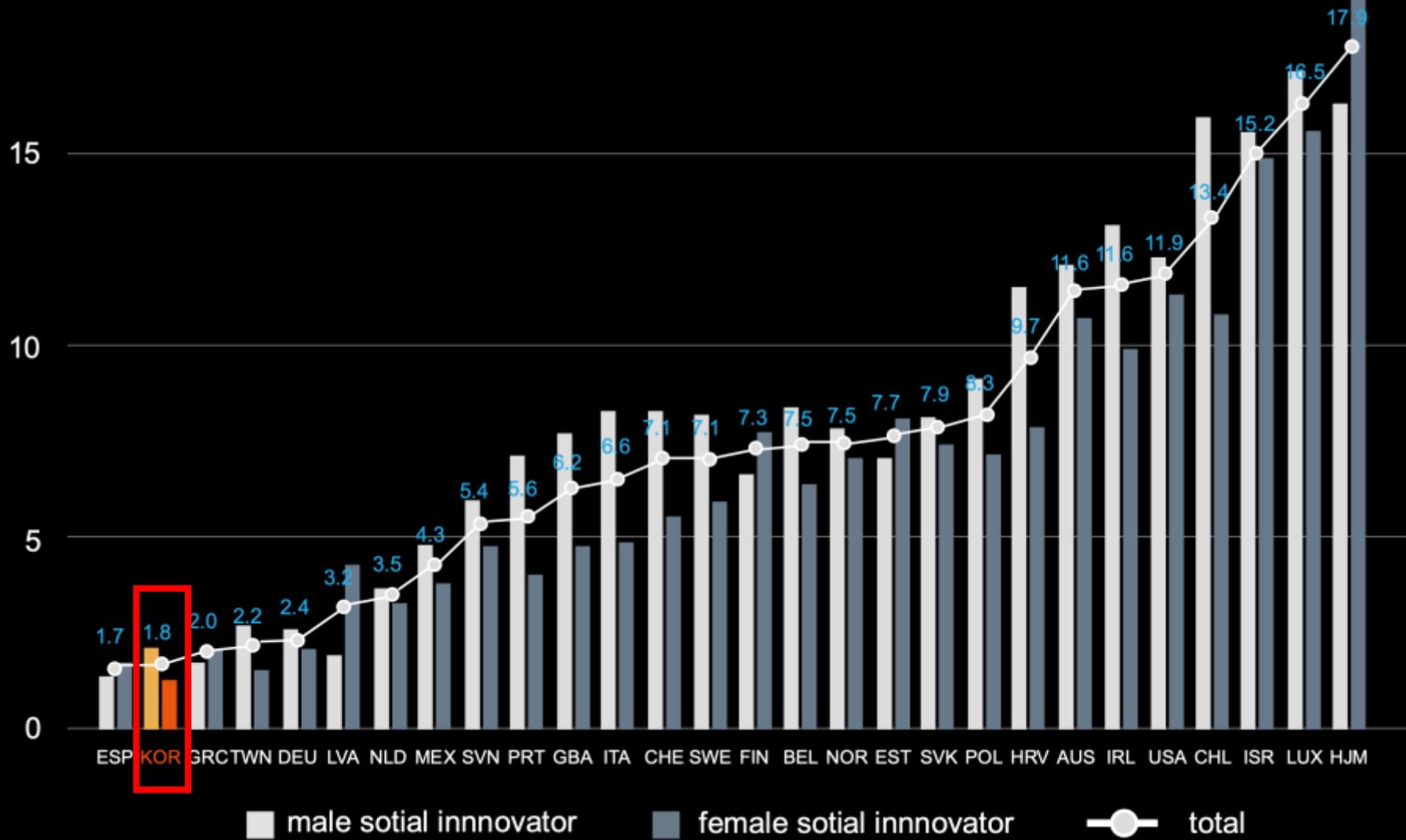
국가에 대한 세 가지 딜레마

디지털 자본주의

커지는 국가와 질주하는 시장, 그리고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삶

왜 시민사회인가?

관료적 **Government**에서 문제 해결하는 **Public**으로
이윤몰입 시장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 협력자로서의 시장으로



사회적·환경적·공익증진 목적의 활동을 최근 시작하고 있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 (%) GEM 2015 Data 분석

새로운 균형점의 패러다임

자유안정성 Freedom + Security

자아실현적 동기화 Eudaimonia + Motivation: Eudaimonic motivation

연대적 공존 Solidarity + Co-existence

디지털라이제션 Digitalization + Localization: Digitalization

적극적 시민과 역동적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

초회복의 모습

적하효과에서 분수효과로의 전환

환경희생을 통한 경제발전에서 친환경 패러다임으로

성공이 개인투자 결과가 아니라 사회투자의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심각한 도전, 하지만 중대한 기회

천천히 내려갈 때 비로소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경험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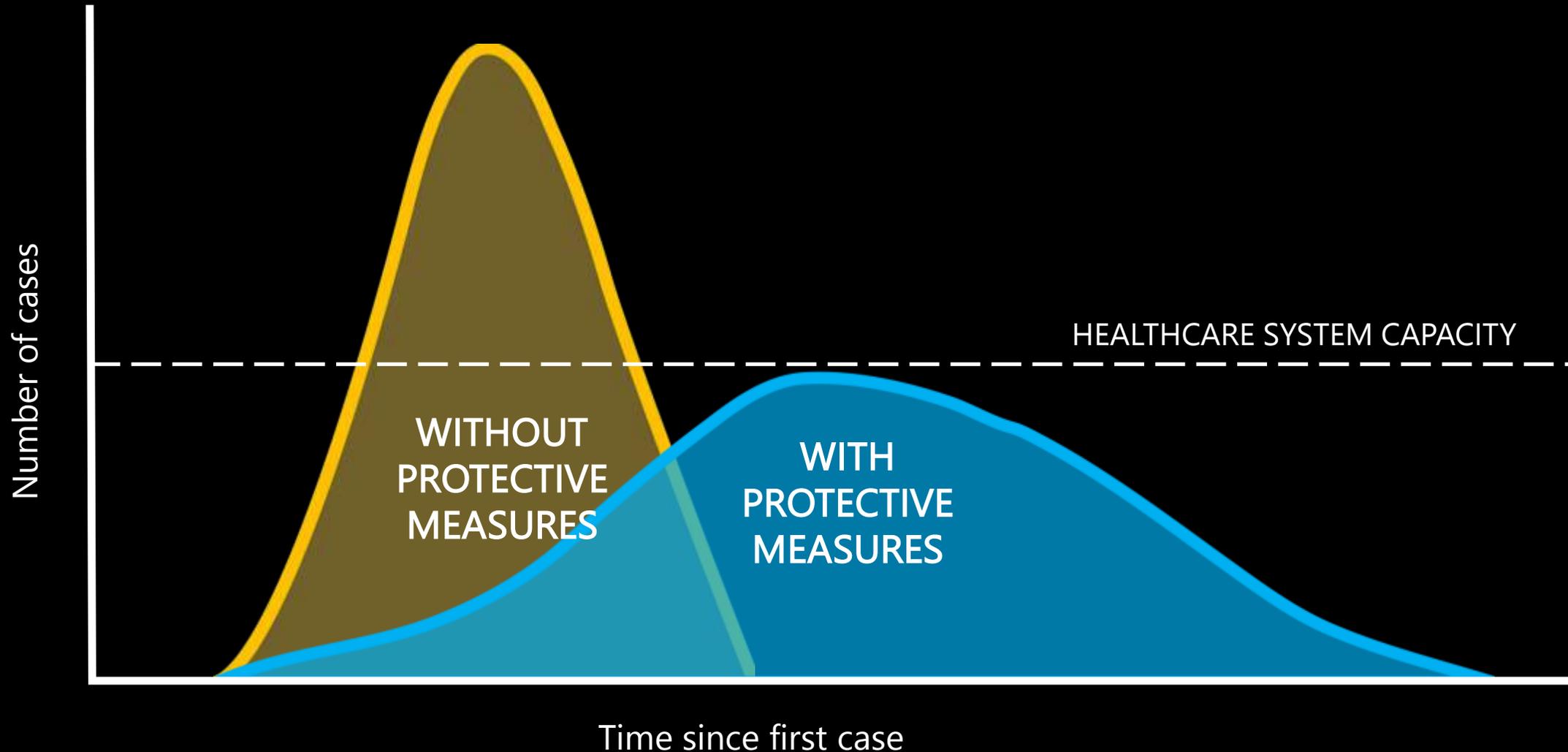
팬데믹에서 깨우치는
연대의 가치





COVID-19

Flattening the curve



3 단계 감염 차단 전략

개인 방역 (3W)

Wash your hands

Wear a mask

Watch your distance

사회 방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검사-추적-조치 전략 (3T)

Test – Trace – Treat

신속성과 정확성이 핵심



"We are Asan" 캠페인

We are Asan

아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아산 시민도 우한 교민도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아산 본토박이 장 ■■■ -

We are A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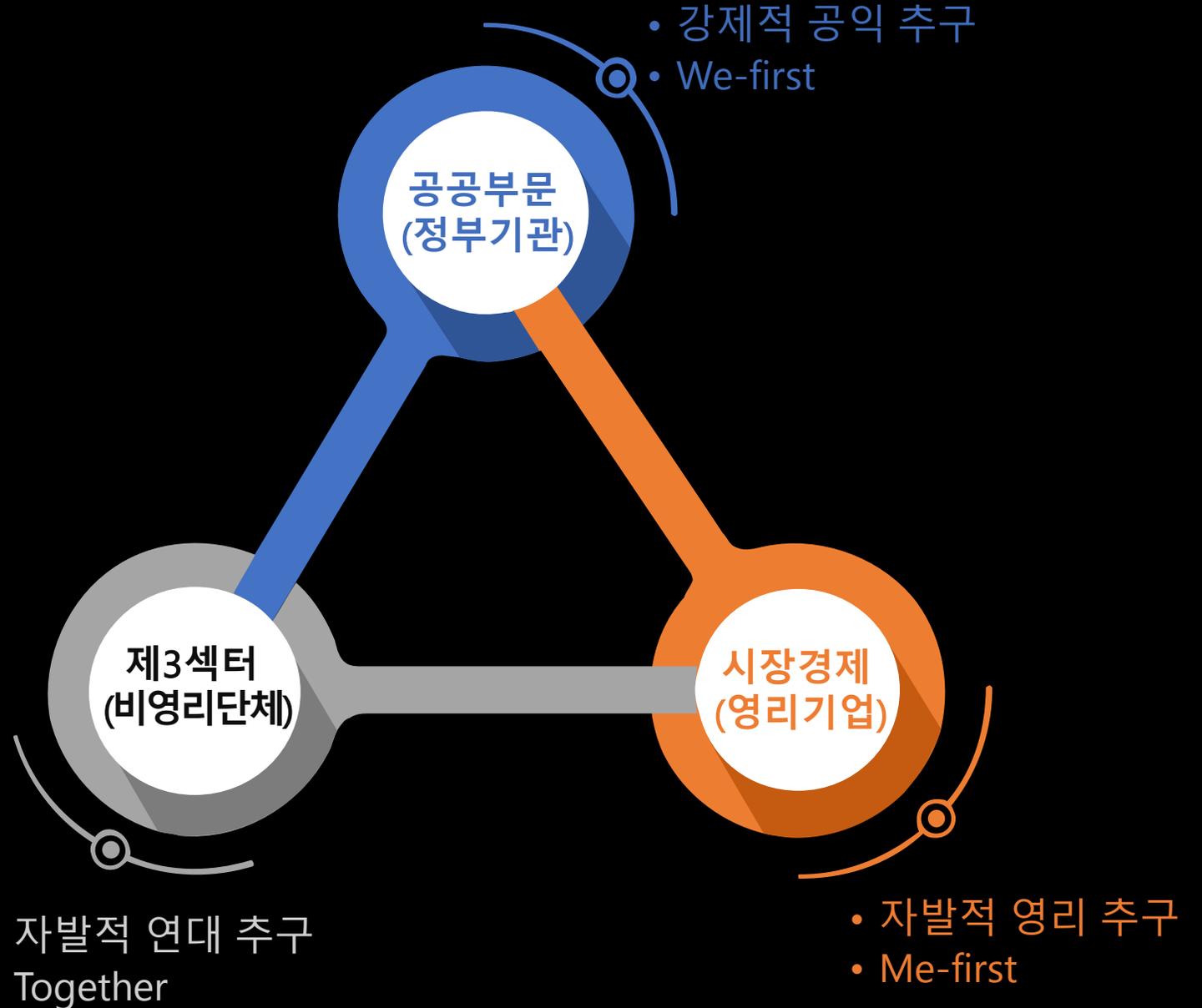
고통과 절망속에서 많이
힘드셨죠?
아산에서 편안히 쉬었다
가십시오 <아산 배방말>

We are Asan!

아산에 잘 있으세요~
잘 계시다 아무탈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산시민....

연대의 사회학

공공부문과 제3섹터가 약하면
시장경제는 상호이익(Win-win)에서
약육강식(Me-only)으로 변질



연대의 경영학

증거 기반

- 증거에 입각하여 투입 자원 대비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찾는 것
- (Effective altruism)

혁신

- 기존의 방법과 영역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 (Innovative altruism)

데이터로 보는 한국의 시민성

코로나19와 미국의 실패

Opinion

The Cult of Selfishness Is Killing Ame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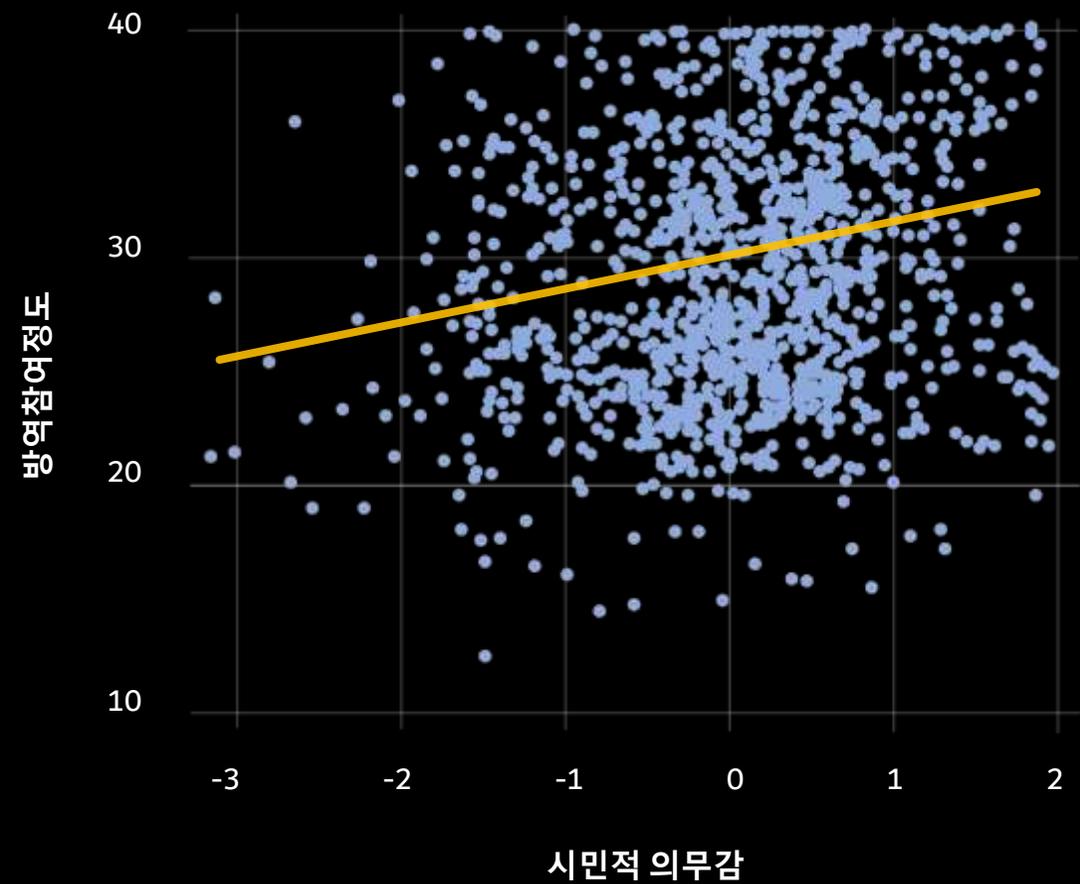
The right has made irresponsible behavior a key princi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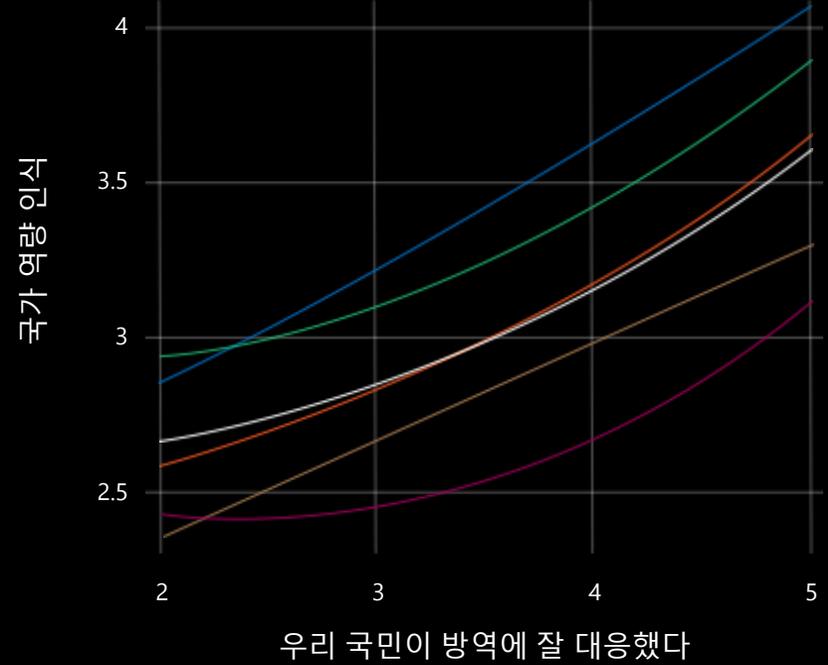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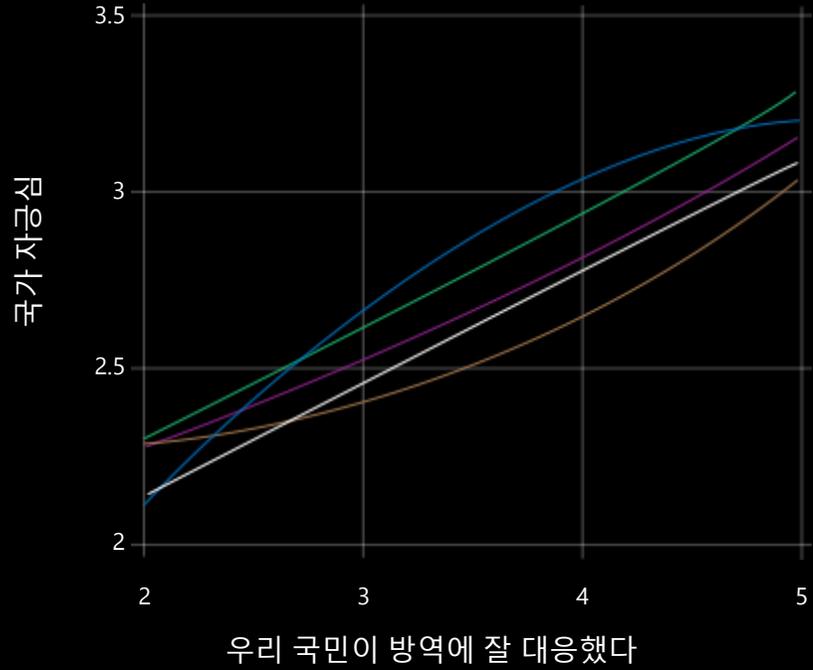


By **Paul Krugman**

Opinion Columnist

한국의 경우





시민적 의무감 → 집합행동 → 긍정적 결과 → 집합적 효능감 → 집합행동 강화의
순순환

개인주의 vs 공동체주의

시민적 의무감각 vs 시민적 권리감각

'보수'보다는 '진보'가 더 약자를 보호하는 시민인가?

엄숙하고 근엄해야 더 시민적일 수 있는가?

개인주의 보다는 공동체주의를 함양해야 더 시민적이 되는가?

시민적 의무에 대한 감각은 무조건 좋은 것인가?

'보수'보다는 '진보'가 더 약자를 보호하는 시민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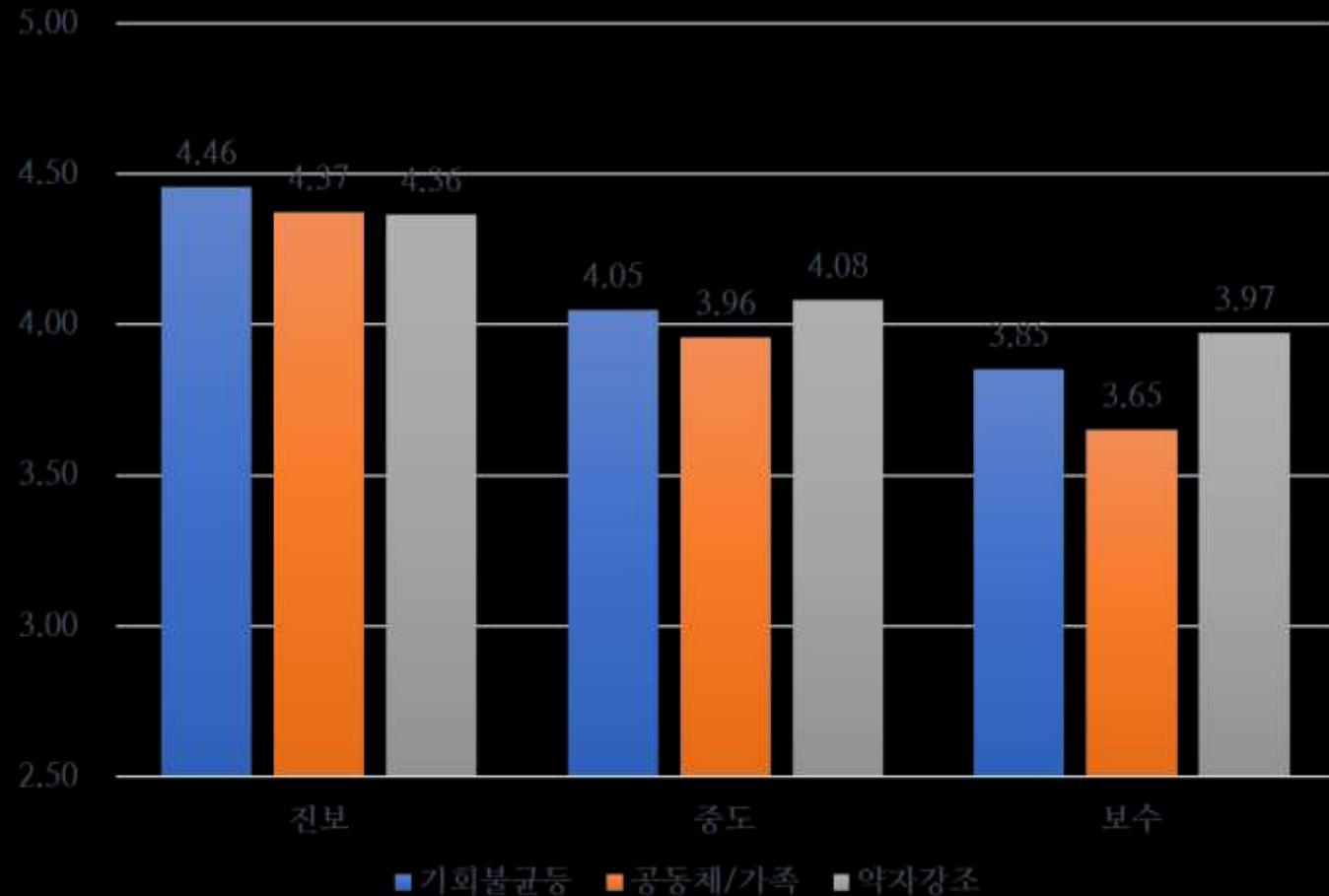
엄숙하고 근엄해야 더 시민적일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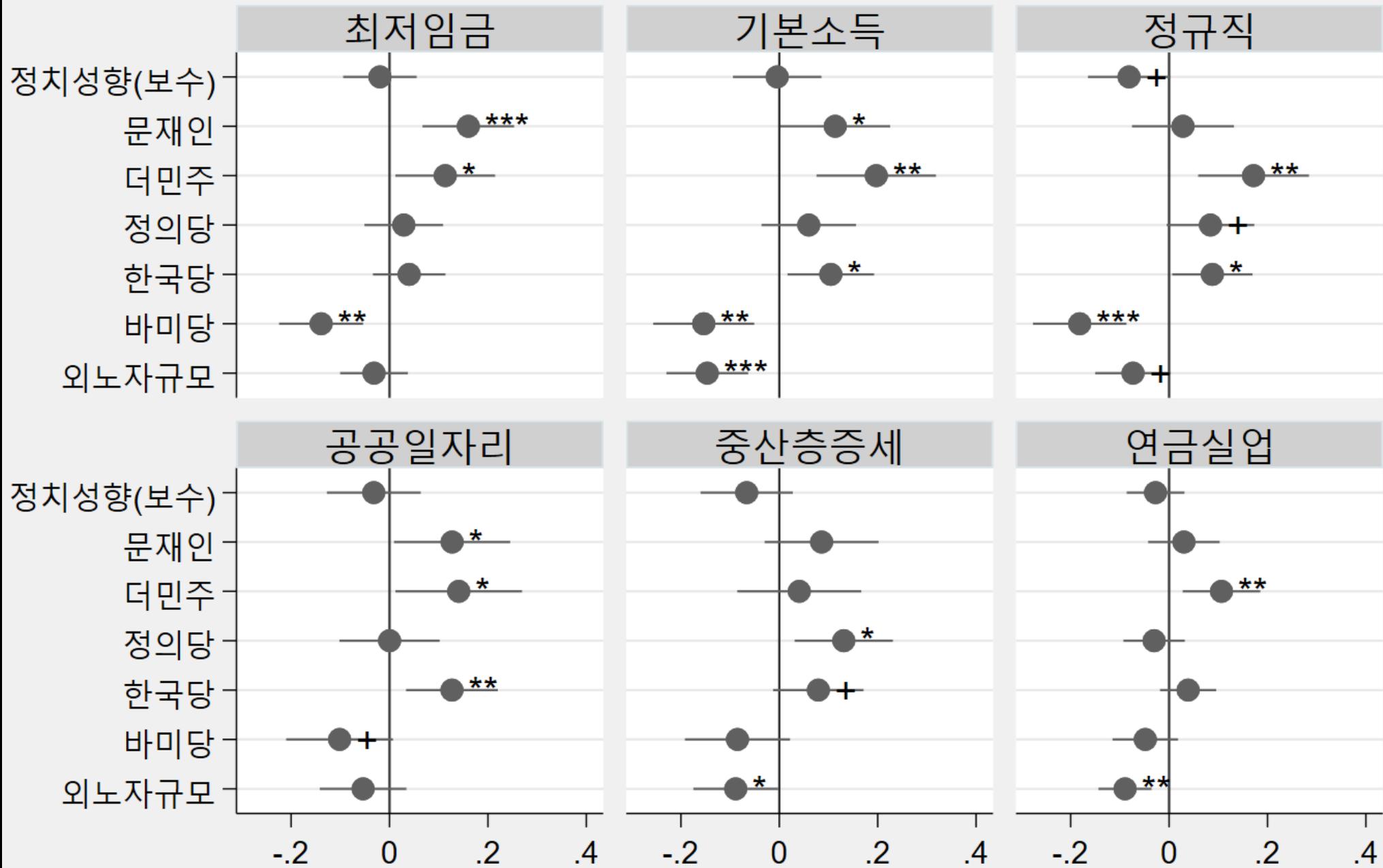
개인주의 보다는 공동체주의를 함양해야 더 시민적이 되는가?

시민적 의무에 대한 감각은 무조건 좋은 것인가?

보수보다는 진보가 약자를 보호하는가?

“정부는 복지를 강화하고,
협력과 연대에 기반한
평등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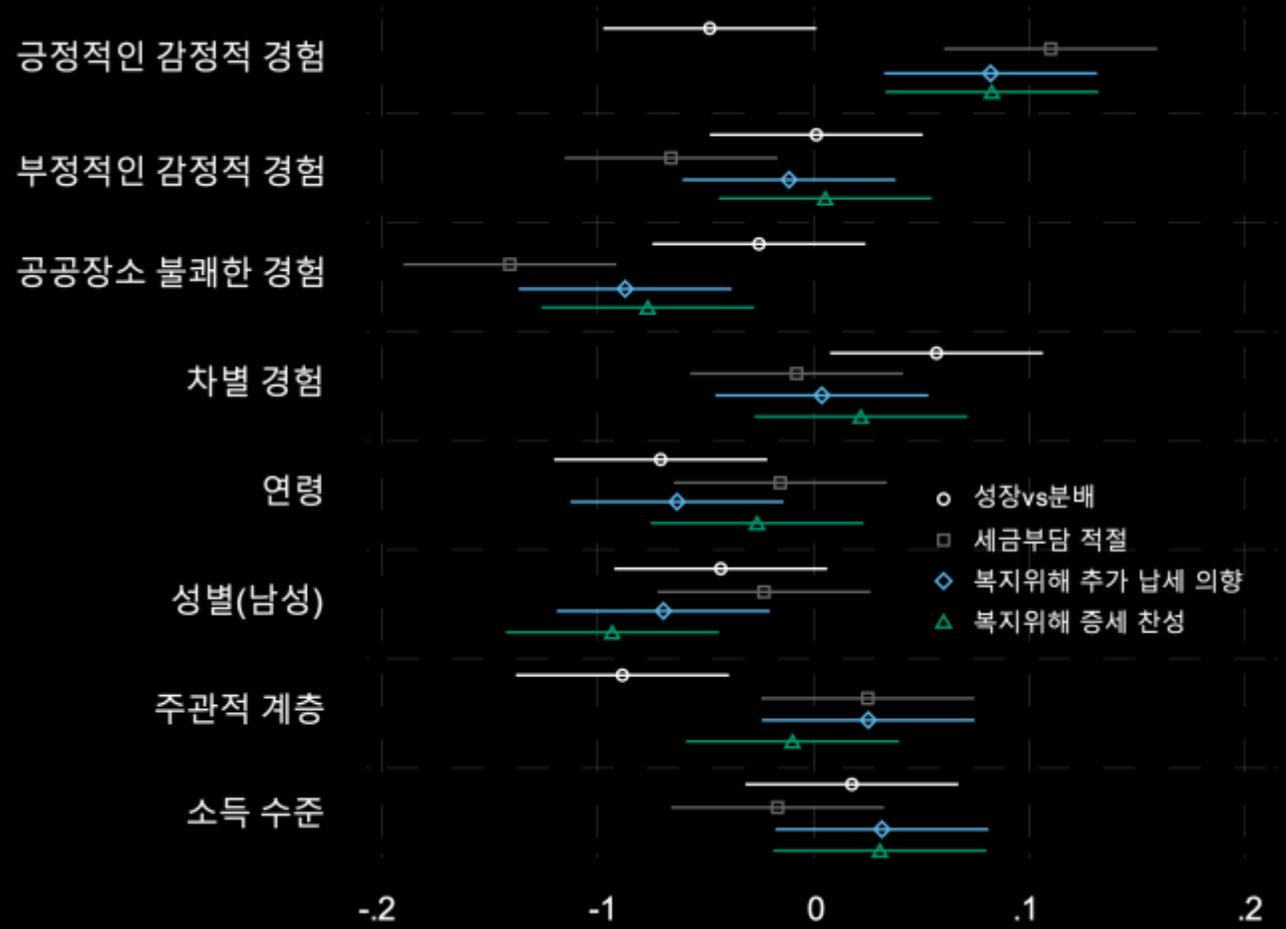
'보수'보다는 '진보'가 더 약자를 보호하는 시민인가?

엄숙하고 근엄해야 더 시민적일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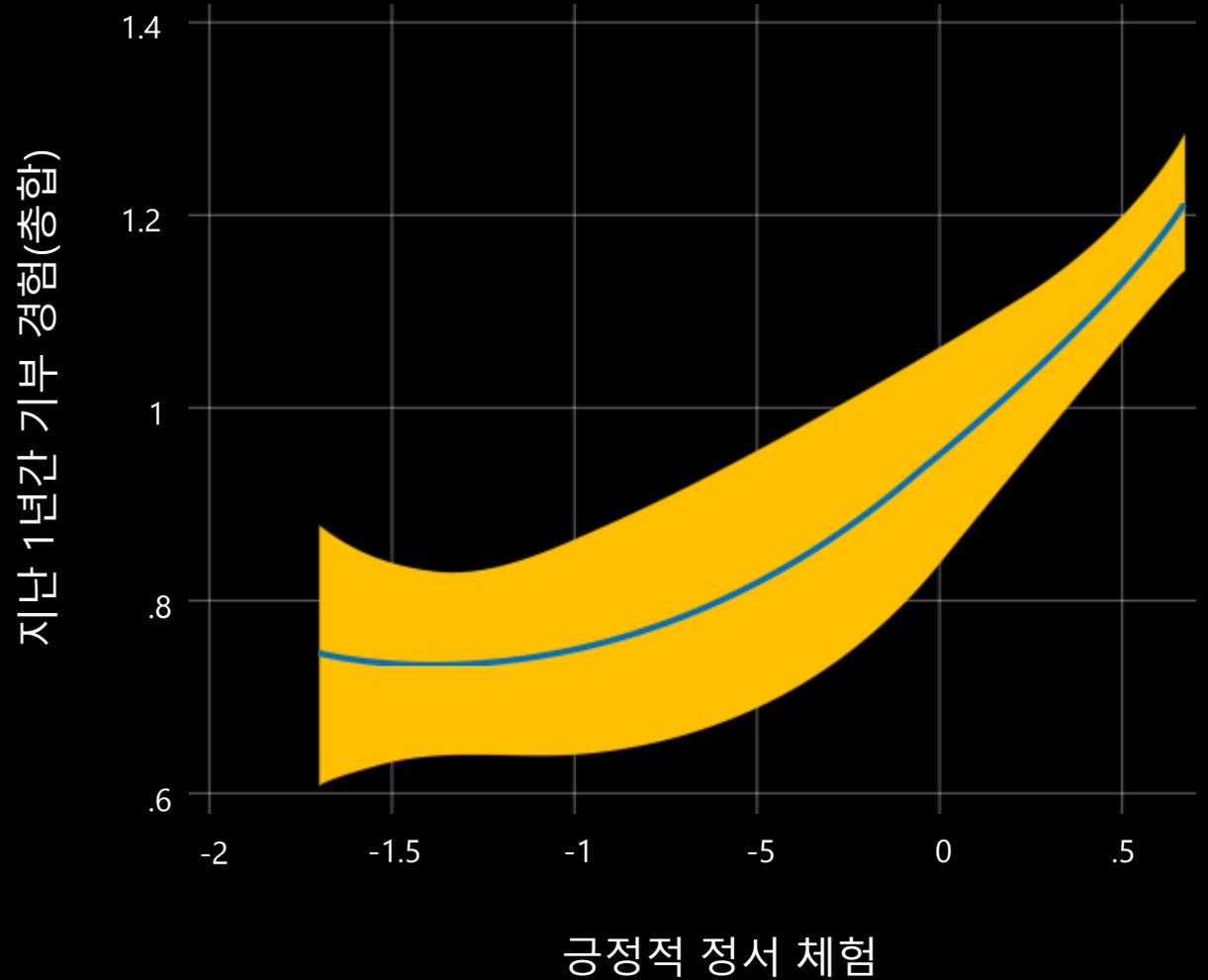
개인주의 보다는 공동체주의를 함양해야 더 시민적이 되는가?

시민적 의무에 대한 감각은 무조건 좋은 것인가?

일상적으로 긍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일수록 복지와
 관련된 납세와 증세에 더
 적극적



기부 경험 또한
일상적으로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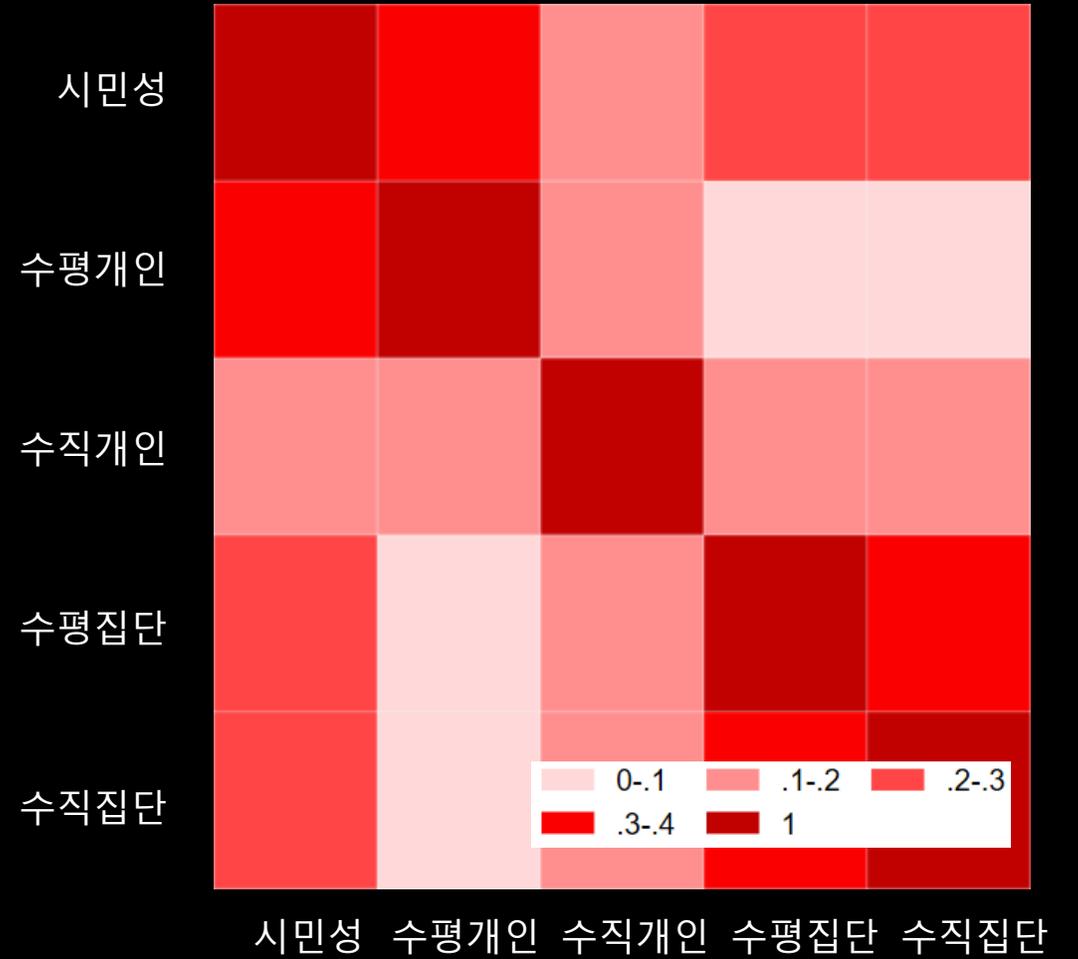
'보수'보다는 '진보'가 더 약자를 보호하는 시민인가?

엄숙하고 근엄해야 더 시민적일 수 있는가?

개인주의 보다는 공동체주의를 함양해야 더 시민적이 되는가?

시민적 의무에 대한 감각은 무조건 좋은 것인가?

시민적 의무감을 놓고 보면,
 오히려 수평적 개인주의와 가장
 강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보수'보다는 '진보'가 더 약자를 보호하는 시민인가?

엄숙하고 근엄해야 더 시민적일 수 있는가?

개인주의 보다는 공동체주의를 함양해야 더 시민적이 되는가?

시민적 의무에 대한 감각은 무조건 좋은 것인가?

일반적으로 시민적 의무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문항들

선거 때 투표

탈세하지 않음

법과 규칙 준수

정부가 하는 일을 지켜 봄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

사회단체나 정치단체에서 활동

비싸더라도 정치, 윤리, 또는 환경에 좋은 상품 구매

(한국에 있는) 나보다 못사는 사람을 도움

(외국에 있는) 나보다 못사는 사람을 도움

선거 때 투표

탈세하지 않음

법과 규칙 준수

정부가 하는 일을 지켜 봄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

사회단체나 정치단체에서 활동

비싸더라도 정치, 윤리, 또는 환경에 좋은 상품 구매

(한국에 있는) 나보다 못사는 사람을 도움

(외국에 있는) 나보다 못사는 사람을 도움

공적제도와 관련된 의무감각

시민사회와 관련된 의무감각

개인주의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
양자를 조화롭게 융합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민주적 시민성의 가치가
하나의 덕성(virtue)으로 추구될 수 있음

지금 우리는 왜 상상해야 하는가?



지금_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V U C A

VOLATILITY

Equity, bond and currency market volatility; the lack of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UNCERTAINTY

The potential change in the inflation index calculation, the potential switch to "smoothing" for pension funds calculating their recovery plan; the lack of ability to foresee what major changes might come.

COMPLEXITY

In understanding these financial markets in the era of the "new normal". The proliferation and increasing complexity of new financial instruments and regulation to deal with increasingly complex markets, moving in ways experts have never seen before.

AMBIGUITY

The resulting feeling. Is this the great rotation from bonds to equities? Or will bond yields stay low for longer? What is the best course of action?

급격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한 시대

Volatile.

Uncertain.

Complex.

Ambiguous.

“변화를 위하여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불편함을 겪을 용기가 비영리단체 전반에 필요하다.

불편함을 느끼는 감각이나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은 있지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도는 많지 않다.

갈등은 피상적인 조화가 아닌 진정한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자원이다.

피상적인 이해와 공감을 넘어서
불편함을 직면하고, 해석하고, 조율하고 행동해야 변화할 수 있다.

불편함을 말하는 것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
갈등을 해결하려는 과정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불안은 없어지지 않는다.

갈등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완벽한 지도는 생기지 않는다.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도 없다.

“어제 문제를 해결했던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이 오늘 맞닥뜨린 재앙의 씨앗일 수 있다.

과거 인류는 경제성장을 해야지만 기아를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양적 성장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렇게 기아를 종식하고 나은 세대로 갔다.

그 당시에는 경제 성장과 양적 확대가 좋은 해법이었지만,

이제는 바로 그 해법이 우리에게 재앙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하고, 양보다는 질을 추구해야 하며, 결과 보

다는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해졌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고, 관점, 해법이 필요하다.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익숙한 방식을 내려놓아야 한다.

“생각의 힘이 너무 중요하다.

내가 계속 생각했던 습관, 사고의 관성을 뚫고

‘이제는 이 방식이 아니구나’라고 사고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한편으론 수많은 이해관계가 있는데,

내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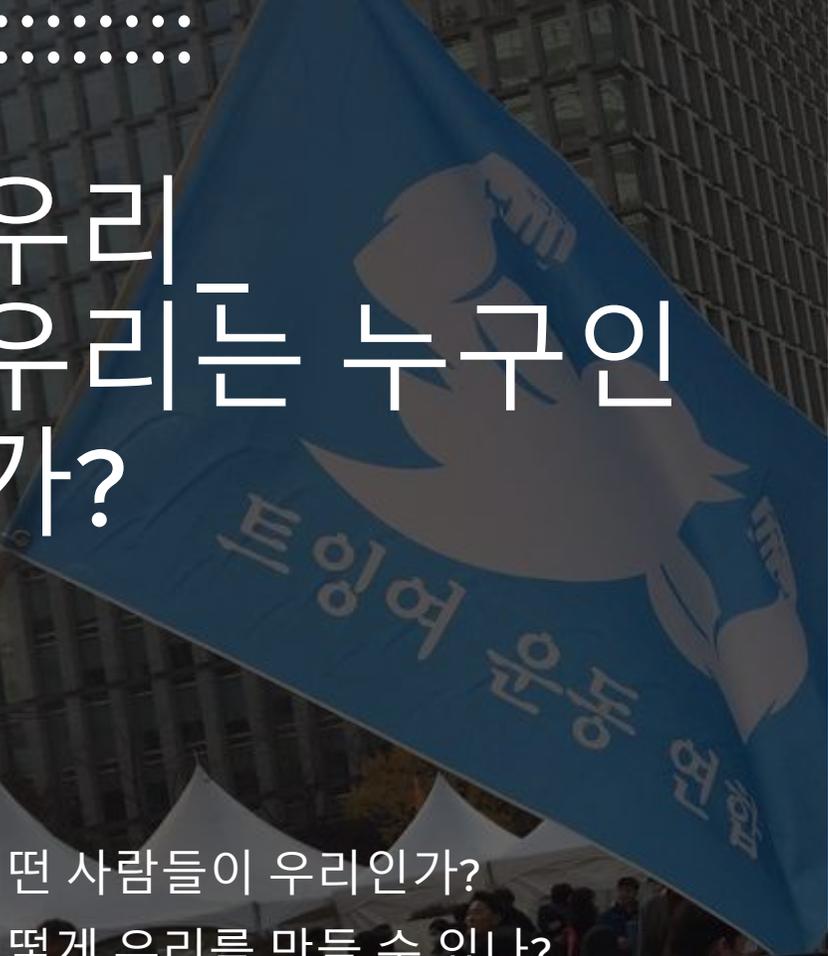
내 욕망이나 자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모두를 위한 선을 추구할 수 있는가?

내게 익숙한 방식이나 사고도 전환할 수 있는가?”

.....

우리 우리는 누구인 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인가?
어떻게 우리를 만들 수 있나?
왜 우리가 필요한가?



“새로운 ‘우리’를 찾아가는 첫 질문은 ‘나’로부터 출발한다.
나는 누구인지, 내가 지금 목소리를 내고 싶은 문제는 무엇인지,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어쩌면 확장된 우리의 재탄생이란 곧
‘나의 재발견’에서
시작되는 지도 모른다.

나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때론 타인과 새롭게 연결되는 길을 열어준다”

“내가 속한 조직의 미션, 활동이
‘나’의 질문을 담아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고민하고,
조직 밖 ‘딴 짓’을 도모하며 새로운 공간에서 만난 이들과 연결된다.
이렇게 확장된 ‘우리’는 때론 ‘조직’보다 더 단단한 소속감의 기반이 된다.
‘나’를 관통하는 취향이나 문제의식이 결국
‘우리’가 되고 선 공통의 지대가 되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조직의 중력에서 벗어나
나에게 맞는 일의 방식을 모색해볼꺼예요”

“느슨한 연대를 통해서도
미션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과연 1인 리더십이 맞는 걸까요?”

영역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조직 안의 사람들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가치를 중심으로 조직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생긴다.



“확실히 세대가 다르면
변화에 대한 감각이 다르죠.”

“조직과 내가 80:20으로 연결되
고 싶어요”

지금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요?

vs.

10년 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15년의 상상 : '환경단체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나초록 씨'

[원격 근무의 확산]

나초록씨는 5년 전 제주도로 터전을 옮겼습니다.
한라산 인근 마을로 귀농하여 작은 텃밭을 일구고 있지만, 환경단체
활동가로서의 삶도 여전히 그녀에게겐 중요합니다.
다행히 서울에 위치한 환경단체 본부와 큰 불편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원격근무를 가능하게 해주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의 상상
: '환경단체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나초록 씨'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한 운동방식]

오늘은 2028년 제주도 하계올림픽 유치 반대를 위한 시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초록씨는 백록담 직접 올라 시위를 하지 않습니다. 홀로그램 시위와 회의는 5년 전부터 일상화되었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접근성 확대를 통한 활동역량 증대]

집으로 돌아온 나초록씨는 환경운동에 관심이 많은 15살 딸과 함께
‘북극곰지키기’ Virtual컨퍼런스에 참여합니다.

초록씨는 ‘북극곰지키기 Global Network’의 활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덕분에
제주도 작은 마을에 살고 있어도

전 세계의 중요한 환경 문제와 새로운 활동 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는
한 마디도 할 줄 모르지만,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전 세계 주요
통용 언어를 99%까지 번역해주는 번역기가 있으니까요.

향후 10년간 공익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가져올 환경요인은 무엇인

가?

	5 저출산, 고령화 (인력구조의 변화)	49	34.8%
	2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사회문제 (사회문제 해결의 한계)	79	56%
	증강된 개인 (개인의 사회문제 해결 능력 및 영향력 증대, 당사자 운동 증가)	35	24.8%
	기술 혁신의 가속화와 보편화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드론 등)	21	14.9%
	5 기술 역량의 중요성 증대 (IT / 매체 활용 능력)	49	34.8%
	1 저소득, 고비용, 저성장 (양극화, 상대적 빈곤감, 청년실업 문제)	82	58.2%
	노동시장의 변화 (불안정한 고용시스템의 가속화)	42	29.8%
	글로벌화 (다국적 NGO 증가 등)	28	19.9%
	재난 사회 / 핵문제 (사회 불안과 갈등 심화)	27	19.1%
	에너지 / 기후 변화 (친환경적 생활 방식 대두, 대체 에너지 기술 발달)	31	22%
	사회 참여에 있어 정부의 주도성 증대 (관 주도의 사업 확산과 제도화)	39	27.7%
	정책의 보수화 (공익 활동에 대한 규제 방식의 진화)	38	27%
	북한, 통일 문제 (대북 정책 변화와 통일 가능성)	28	19.9%
	4 영역간 경계 모호 (영리-비영리-정부의 영역을 넘어선 공익활동)	69	48.9%
	3 세대 전환 (단체 내 세대 다양성 증가와 리더십 전환)	74	52.5%
	기타	14	9.9%

“좋은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 지치고 떠나간다.

사실, 조직의 미션은 사람들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미션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도, 미션을 현실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자신의 생각과 힘을 펼칠 수 있는 조직구조와 문화를 새롭게 상상해야 한다”

#미션을추구하기위해조직을떠나는사람들

“변화의 핵심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전에는 만나지 않았던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연결이 일어나면 그게 사회 변화의 기초라고 생각한다. 없었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시작이다.”

#새로운가능성이여전히있다

“기후위기는 일단 눈앞에 드러나면 다시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인류가 겪었던 다른 문제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위험이다.”

#돌이킬수없는최악의시나리오가펼쳐질수있다



모두가 아직 답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함께 상상'할 수 있다.



“개인들은 고도로 성장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이 개인들이 가진 자기 생각을 표현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이런 사람들이 표현하기 시작하면
예전에는 ‘말세다, 혼란에 빠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말을 안하면 정말 종말이 오는 것이고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며 끊임없이 협상과 협업을 할 때
세상이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질문하지 않으면 관성대로 작동한다.

질문은 생각과 성찰을 낳고,

생각과 성찰은 실험과 시도를 낳고,

실험과 시도는 진짜 변화를 만든다.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
날카로운 갈등과 상처와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을 때는
더 큰 조망 능력이 필요하다.

이 갈등은 왜 일어나고 있는가?
이 감정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가?
전체 그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구성원 각자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을 때, 공통의 목적을 회복하
기 위하여 상호작용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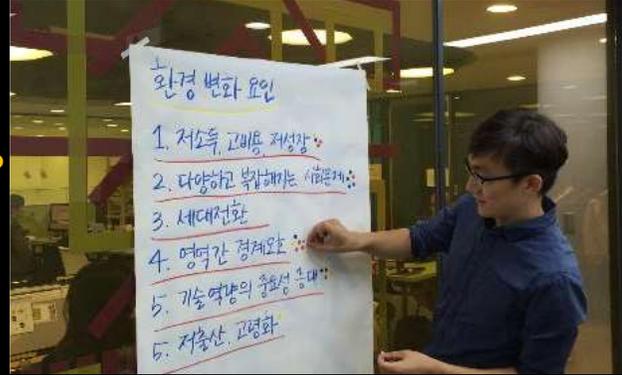
앞으로 10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다가올까?
우리가 그 변화에 대응하려면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일을 지속하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함께 일하는 새로운 방식은 가능한가?



지금 우리는 왜 상상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는 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내면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만들고 싶은 미래를 상상하고

함께 그 미래를 이야기해보고

같은 갈망을 가진 이들과 연결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고 대화함으로써
그 미래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 오늘의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발견하고,
그 미래를 함께 만들고 싶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실험을 설계해 보아야 합니다.

미래를 찾아가는 길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예측치 못한 변수들을 만나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미래에 대한 갈망을 키우고 나누고,

이를 뜻대로 삼아 오늘을 설계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
한 행동을 만드는 캠페인

.f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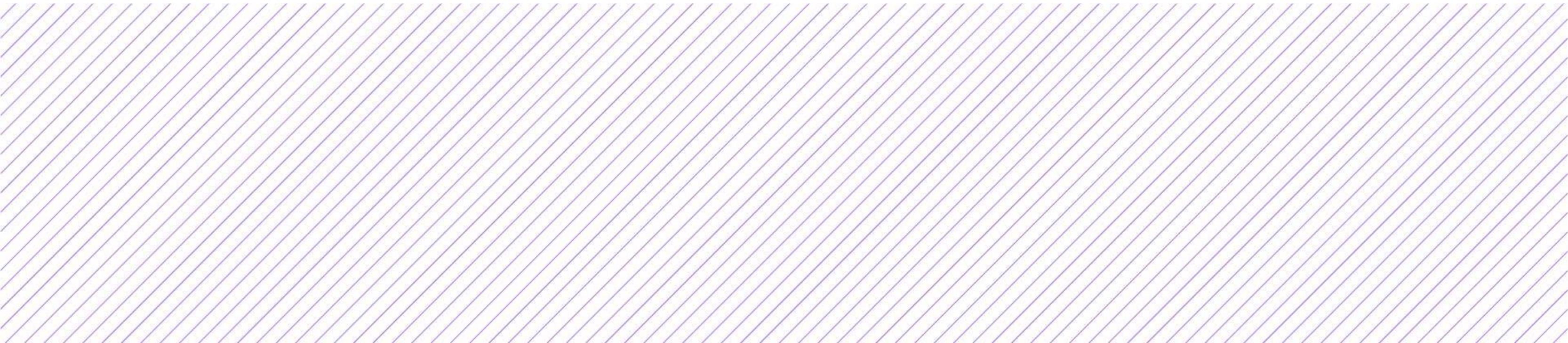
S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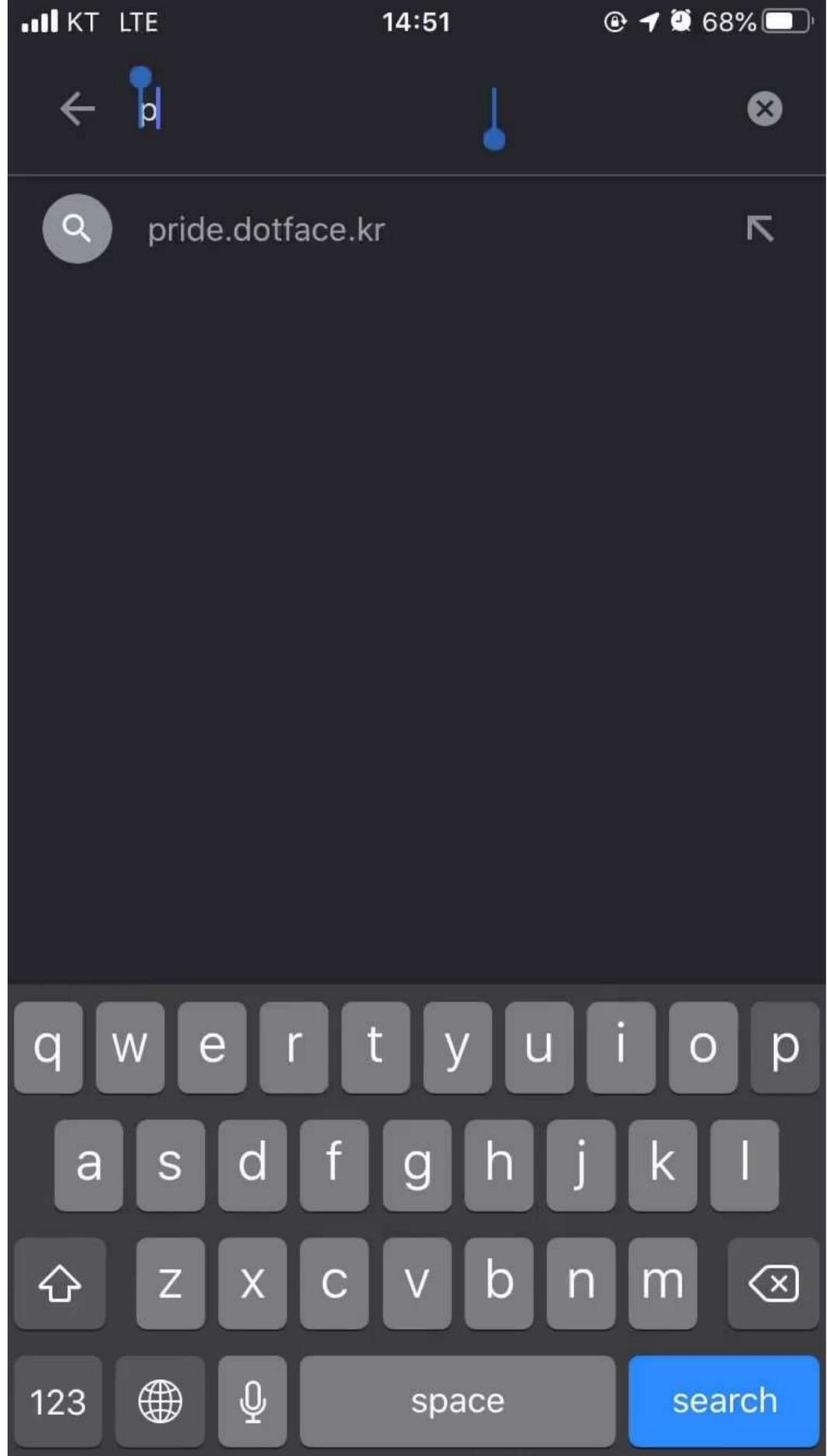
새로운 상식을 마주하다

.face

변화가 필요한 지점을 가장 깊이 있게,
과감하게 다루는 모바일/웹 다큐 미디어

얼마 전, 온라인 피드에
서 이런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캠페인 사례 1. 온라인퀴퍼

프로젝트 결
과

12일 동안
8만 5,767명이
함께 없던 길을 만들었습니다.

(참여자 이메일 집계 수 기준 2020.6.23~7.4)

<https://pride.dotface.kr/m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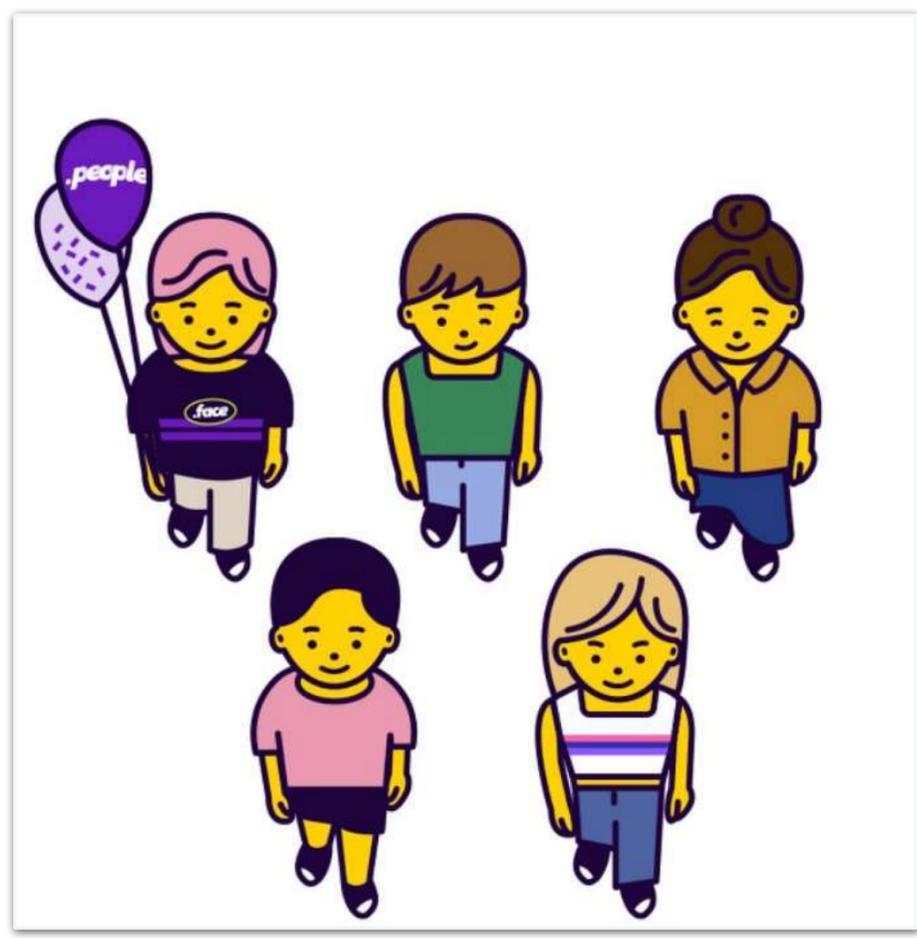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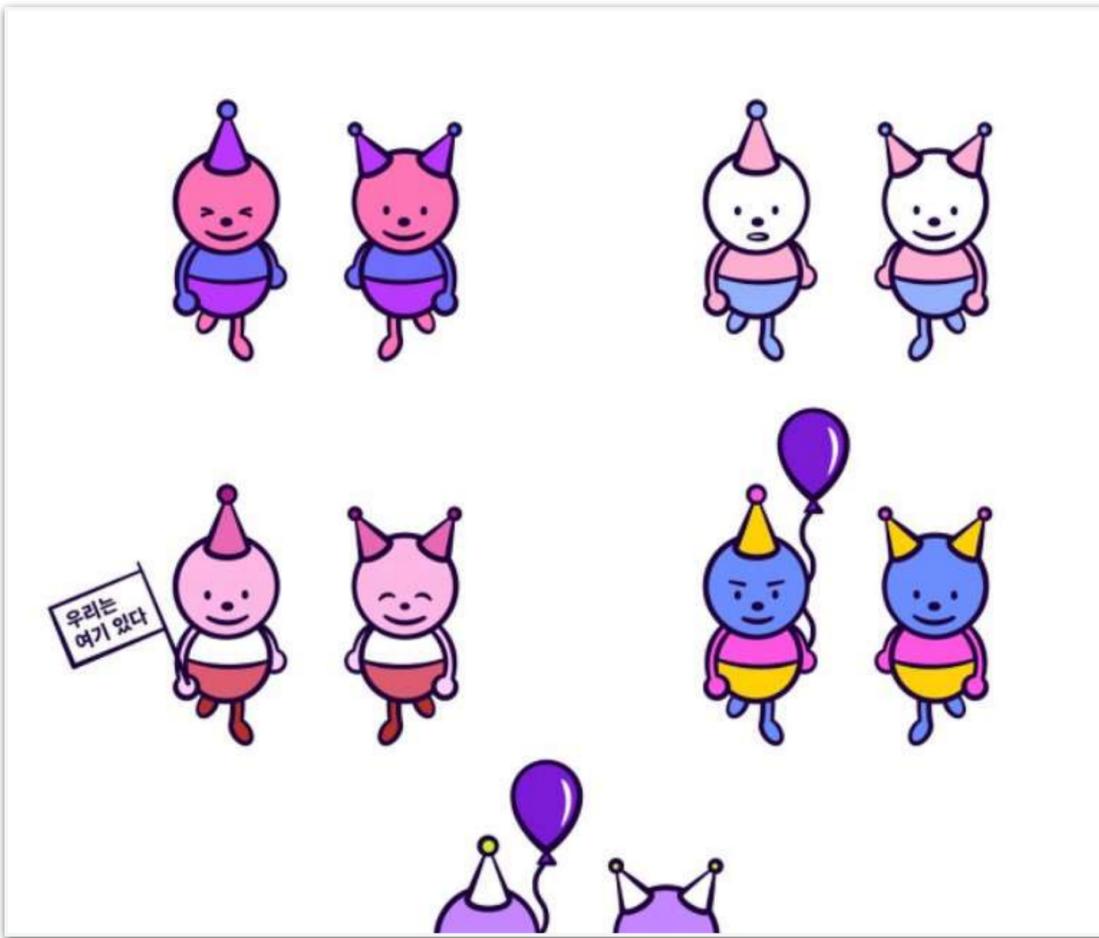
캠페인 사례 1. 온라인퀴퍼

기획의
작

“이대로 보내기엔 6월이 너무 허전한
데!”

캠페인 사례 1. 온라인퀴퍼

진행 프로세스



캠페인 사례 1. 온라인퀴퍼

사회적 임팩트

코로나- 비대면 시대,
새로운 방식의 자기 표현
사회 참여 경험

캠페인 사례 1. 온라인퀴퍼

참여를 만드는 캠페인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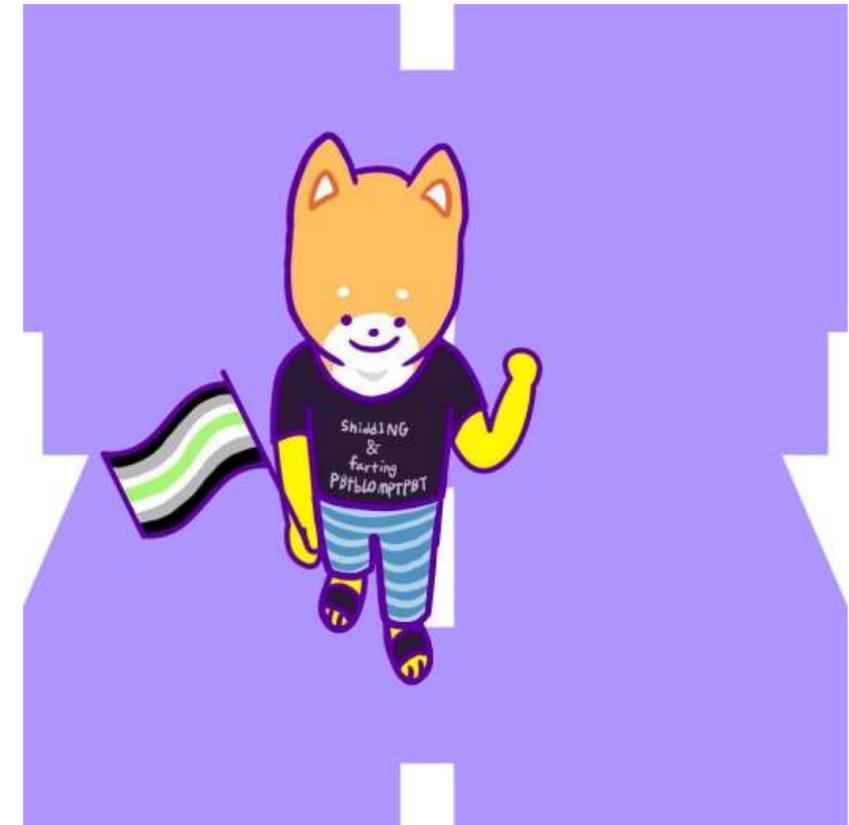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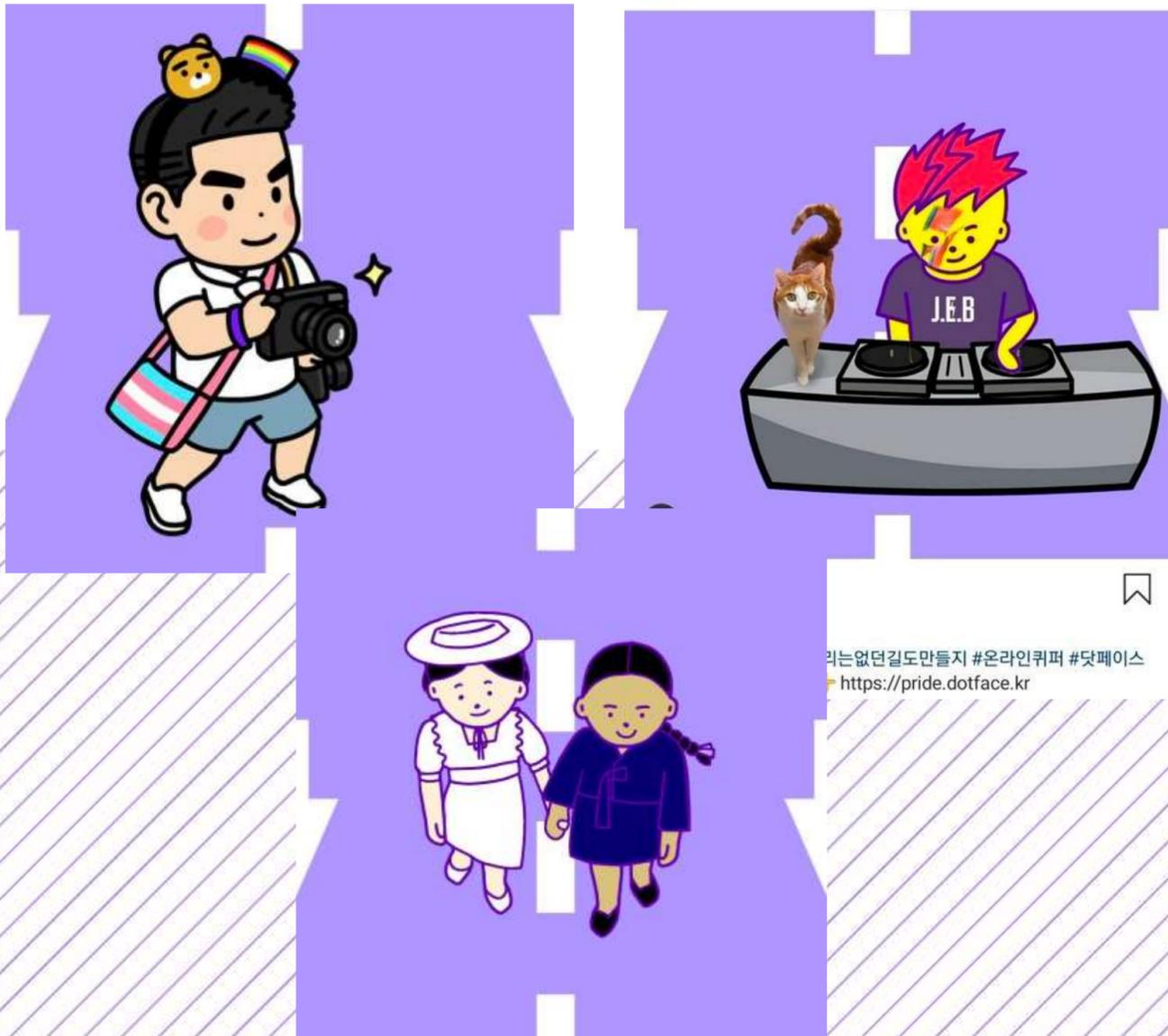
군형법 92조의6 폐지하라

무지갯빛 섹스를 응원해



캠페인 사례 1. 온라인퀴퍼

참여를 만드는 캠페인



캠페인 사례 1. 온라인퀴퍼

참여를 만드는 캠페인



+



=



인스타그램에서
이거 본 사람?



#우리는없던길도만들지

face

캠페인 2. <Here I AM>

아청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 사례

뒤로

드래곤볼 (남 29세)

.face

2017년 11월 14일 화요일



드래곤볼

50만원

12:17:08

캠페인 사례 2. Here I Am

프로젝트 결과

300만회가 넘게 콘텐츠가 조회 되었고

1만 3천 명의 아청법 개정 서명을 받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전달하였고

후원 펀딩 4천 만원을 달성, **1천9백만원의 순수익**금을 십대여성인권센터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캠페인 사례 2. Here I Am

진행 프로세스

콘텐츠

아청법개정
캠페인

펀딩

캠페인 사례 2. Here I Am

참여를 만드는 캠페인

당신의 10km 이내에 청소년 성매수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정말 많이.

“14살? 와우 나야 좋지.”

“오빠가 용돈 줄 수 있는데.”

“키/몸무게는? 통통 아니면 마른 편?”

“교복 챙겨올 수 있어?”

“서로 비밀 지키면 돼.”

...

성인인증도, 실명인증도 필요 없는 익명 채팅앱에 가입하고 나면 10km 이내에 있는 익명의 상대들로부터 수십 통의 쪽지가 쏟아집니다.

‘즐거운 채팅’이라는 허울 뒤로 익명 채팅앱은 **청소년 성착취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Here I am

성착취 피해 청소년들의 10km 이내에는 수많은 청소년 성 매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수많은 **‘우리들’**이 존재합니다. 성착취 피해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부당한 경험들과 공포, 그리고 2차 가해에 함께 분노하며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게는 처벌이 아닌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는 **‘우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캠페인 사례 2. Here I Am

참여를 만드는 캠페인

아래 295개의 단체가 아청법 개정 운동 연대서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 세상을 품은 아이들 |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춘천길잡이의집 | 춘천길잡이의집 부설 강원위기청소년 교육센터 | (사)탁틴내일 | 서울산업진흥원 | 강북늘푸른교육센터 |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 사단법인 두루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 나자렛성가정공동체 | 다시함께상담센터 | 마인하우스 | 막달레나의집 | 사단법인 평화의샘 |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 | 씨튼해바라기의집 | 여성성공센터 W-ing | 여성인권상담소 소녀의집 |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 여울 여성희망센터 | 우리들쉼자리 | 유프라시아의집 | 한국여성의집 | 휴먼케어센터 | 아해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 대구여성회 | 대구위기청소년교육센터 | 사단법인 인권희망 강강술래 | 인천위기청소년교육센터 잇다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 가족과 성 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 가톨릭여성상담소 |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 거창성·가족상담소 |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경원사회복지회부설 여성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 | 광명YWCA 성폭력상담소 |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광주여성의전화부설 광주성폭력상담소 |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구미여성종합상담소 | 군산성폭력상담소 |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기장열린상담소 | 김해여성의전화부설 김해성폭력상담소 | 나주여성상담센터 |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 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 담양인권지원상담소 |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동구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 동두천성폭력상담소 | 로댐나무상담지원센터 | 로댐성폭력상담소 | 무안여성상담센터 | 뽕엘케어상담소 | 보두마상담센터 |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 | 부여성폭력상담소 |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 사람과평화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 사천성가족상담센터 | 새경산성폭력상담소 | 서초성폭력상담소 | 성남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정읍성폭력상담소 |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 송추여성인권센터부설 송추성폭력상담소 | 수원여성의전화부설 통합상담소 |

캠페인 사례 2. Here I Am

참여를 만드는 캠페인

#피해자를_피해자로

SKT 60% 23:12

서명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10482번째로 서명에 참여하셨습니다.
성매수 피해 피해 여성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페이지를 공유해주세요

[Tweet](#) [카카오톡](#)

여성가족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에게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기

 박인숙
바른정당
[촉구하기\(9\) >](#)

 윤종필
자유한국당
[촉구하기\(9\) >](#)

다른 여성가족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에게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기 →

2017.12.15 조회 60899

#피해자를 피해자로

빠띠 캠페인즈 검색

#피해자를_피해자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성공**

대상: 권미혁 외 32
 베리

[내용](#) [서명 999+](#) [소식](#)

진행 시간
964 일 00 : 52 : 08

현재 13,687명이 서명하였습니다. 10,000명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136%
서명 13,687 목표 10,000

송윤진님이 서명하였습니다.
이혜진님이 서명하였습니다.
최은서님이 서명하였습니다.
[더 보기 >](#)

[서명하기](#)

캠페인 사례 2. Here I Am

참여를 만드는 캠페인



닷페이스 .face
@DotFace

네 명의 국회의원이 [#피해자를_피해자로](#) 아청법 개정 서명운동에 응답해주셨어요!

아직 응답이 없는 분들의 리스트도 아래에서 살펴보고 응답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 govcraft.org/petitions/68?a...

Translate Tweet

여성가족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에게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기

촉구 메시지에 응답한 분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촉구하기(32) >	 김삼화 국민의당 촉구하기(2)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촉구하기(29) >	 정훈숙 더불어민주당 촉구하기(14) >
---------------------------------	------------------------------	---------------------------------	---------------------------------

3:39 PM · Jan 5, 2018 · Twitter Web Client

<H.I.M>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일시: 2018년 2월 8일 (목) 14시-17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3간담회실

참석: 선착순 20명

신청: <http://bit.ly/닷페이스아청법간담회>

문의: 박미현, 김모란 상담원 (십대여성인권센터)

02-6348-1318 | 010-8233-1318

주최



.face

Parti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캠페인 사례 2. Here I Am

참여를 만드는 캠페인



캠페인 3. <내가 만드는 하 루> 디지털 성폭력 피해 경 험자 일상 회복을 위한 프로 젝트

터 검토 보기 도움말 Acrobat

가 가

자동 를 바꿈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맞춤

E	F	G
참여인원	채널/그룹	방장/방소리



작전과장 owner
VIP신작 곧 또 나옵니다 형님들



1번방
2번방 영상 업데이트 완료

1651 채널

캠페인 사례 3. 내가 만드는 하루

프로젝트 결과

 피해경험자 58명에게 최대 75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캠페인 사례 3. 내가 만드는 하루

참여를 만드는 캠페인

첫 번째 팔로업 :: 피해경험자가 기대한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



.face

[닷페이스] 내가 만드는 하루
나에게 ▼

7월 23일 (목) 오후 7:09 (12일 전)



follow up

첫 번째 팔로업

피해경험자가 기대한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닷페이스 쌤머 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첫 번째 팔로업 레터에서는 피해경험자에게 일상 회복 지원금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일상 회복 지원금을 어디에 쓰고자 하셨는지에 대해

캠페인 사례 3. 내가 만드는 하루

참여를 만드는 캠페인



뉴스레터-비디오브리핑 피드백 APP 6:14 PM

[뉴스레터 피드백]

- 200723팔로업1

피드백 분류 : 좋아요👍

이번 비디오 브리핑 어떤 점이 좋았나요?

: 지금까지의 후원자 경험 중에 가장 탁월했어요. 메일을 읽는 동안 닷페이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런 일을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과정과 고민을 성실하고 세심하고 날카롭게 공유해줘서 정말 감사드려요. 지금 당장은 닷페피플을 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이번 팔로업을 통해 닷페이스를 오래 기억하게 될 것 같아요. 부디 다른 곳들도 닷페이스의 영향을 받아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해봅니다.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인류애 바사삭을 경험하던 기간에 닷페이스 존재가 큰 힘이 되네요.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Contact

닷페이스 공식 메

we@dotface.kr showd

일 대표 조소담

am@dotface.kr

+82 10-3579-5319

인디스쿨

초등교사 커뮤니티

SINCE 2000.12.

광고를 여기
연결을 받습니다

SINCE 2000.12



대두샘, 작은불꽃, IGIZI
네모샘, 산마로, 소금별....

선생님들이 가장 즐겨 찾는 커뮤니티

136,670명

교사 인증 회원수



전국 초등교사 대비

01 인디스쿨은 어떤 커뮤니티인가

#공유 #공감 #소통 #시도와 실험

고사상상을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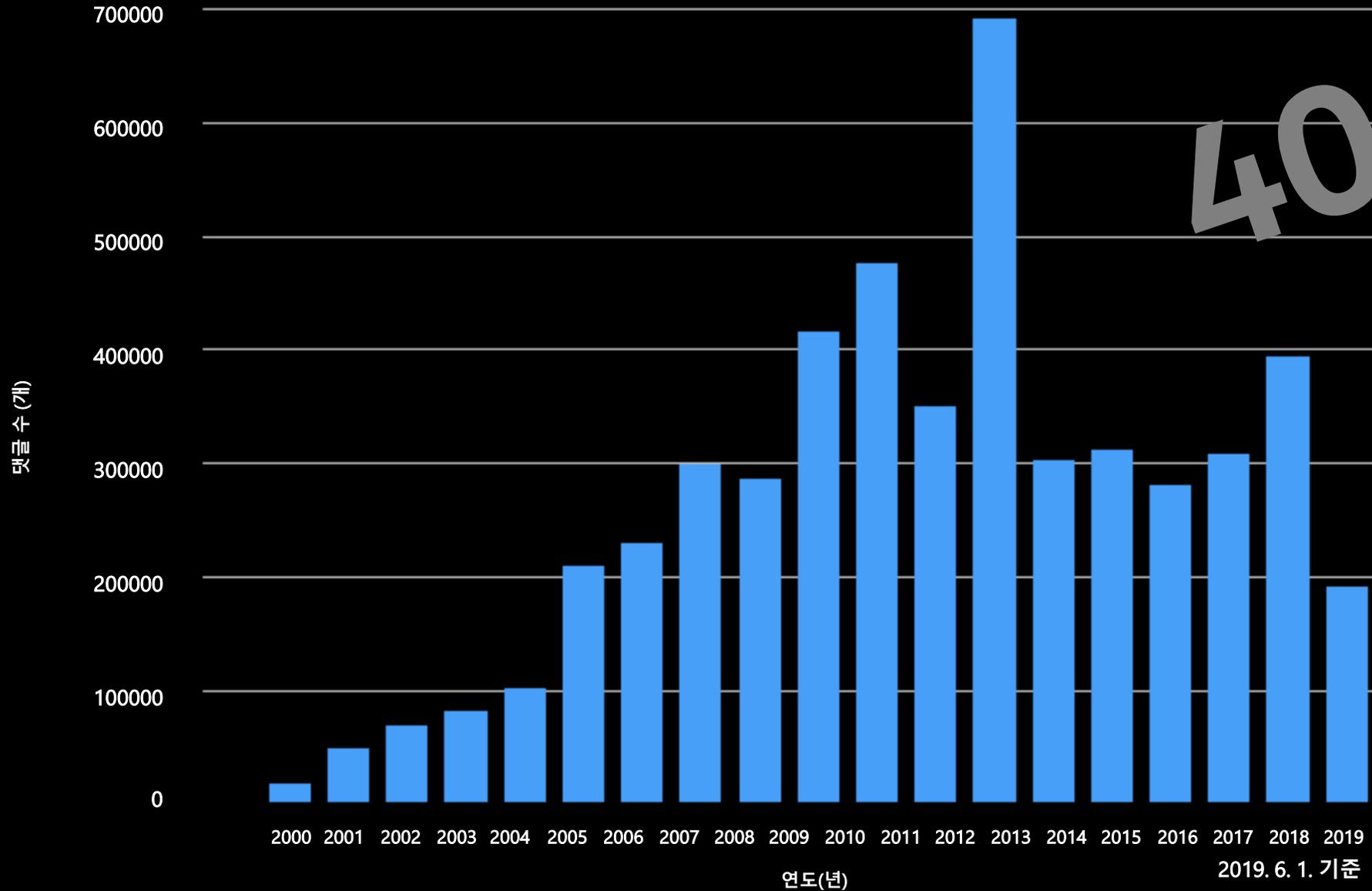
연기기를 돕습니다.

INDISCHOOL

공유의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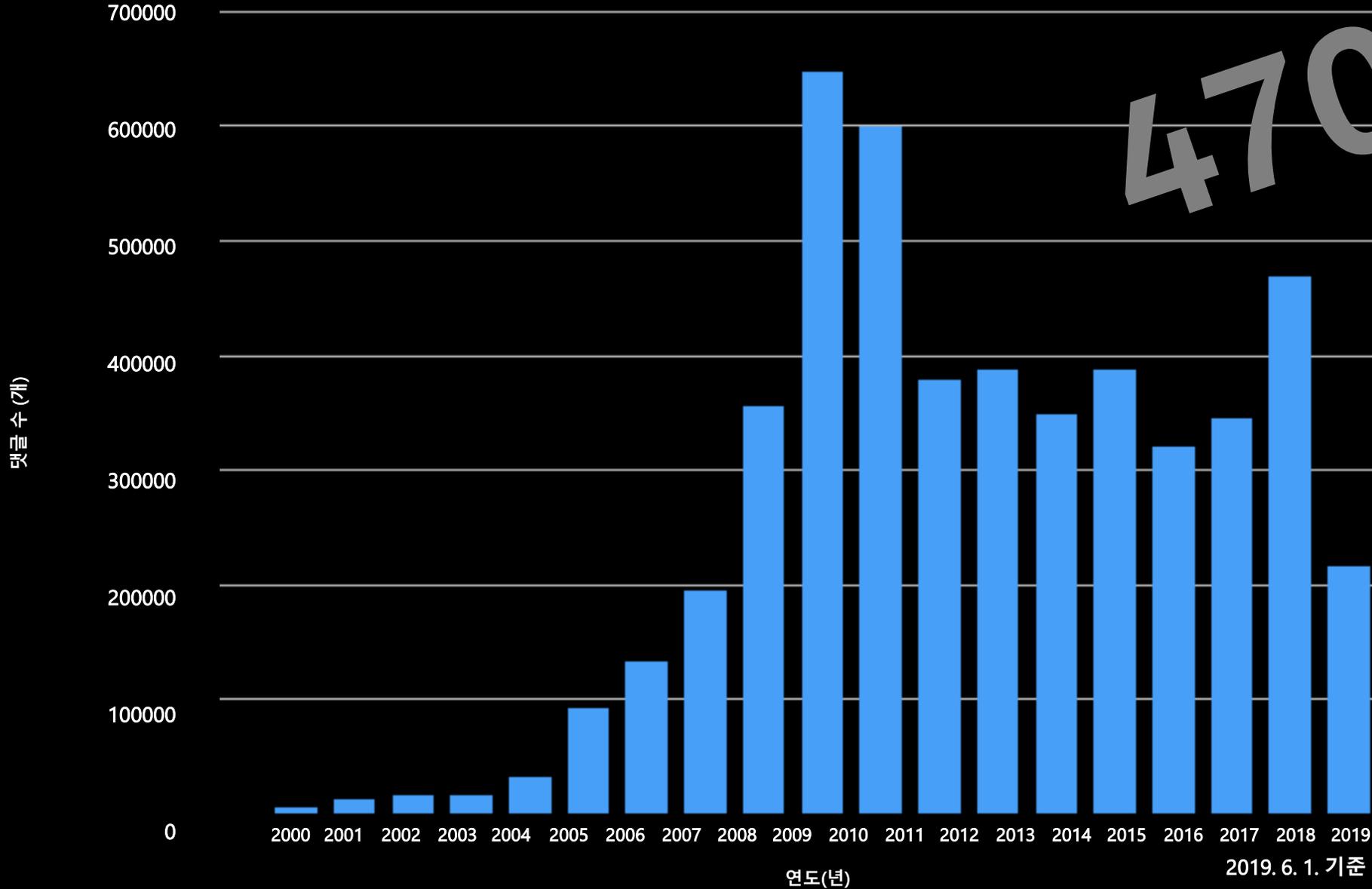


연도별 문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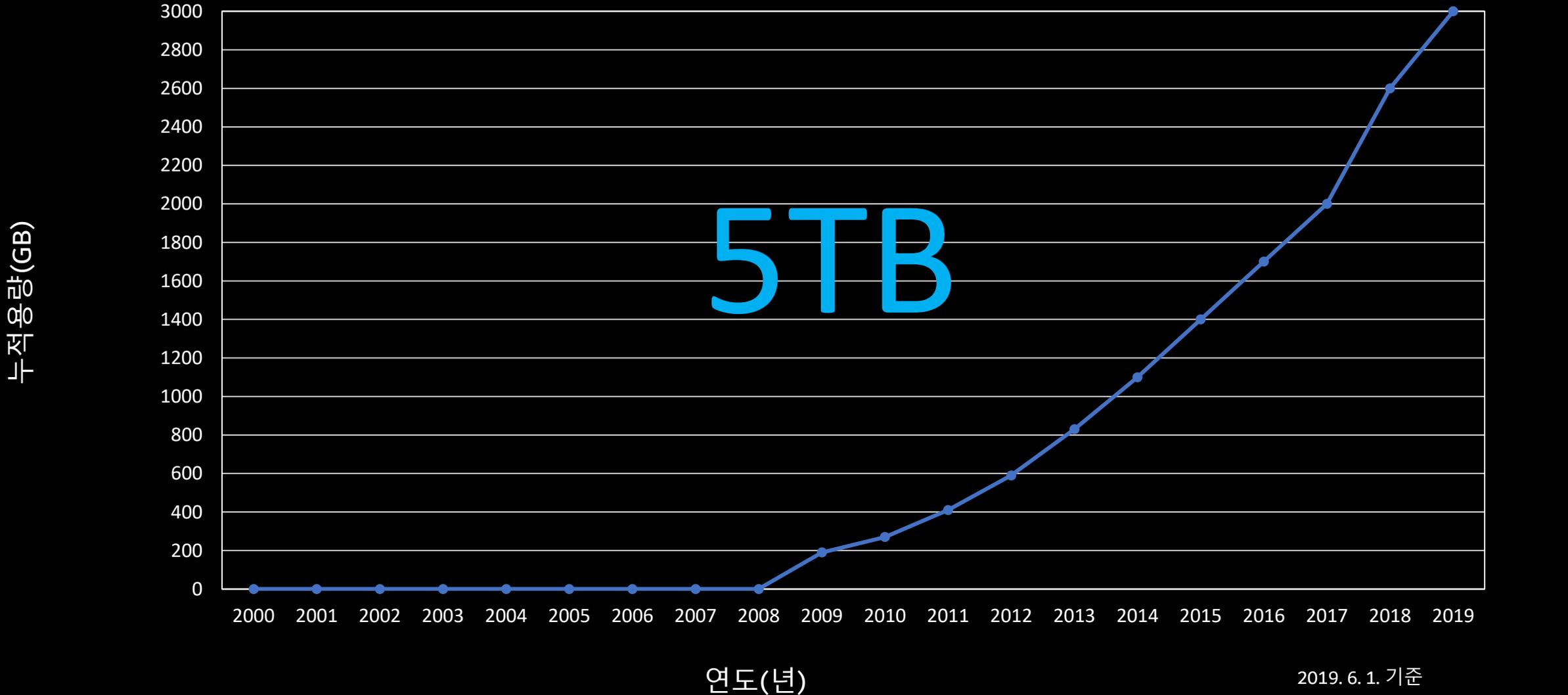


2019. 6. 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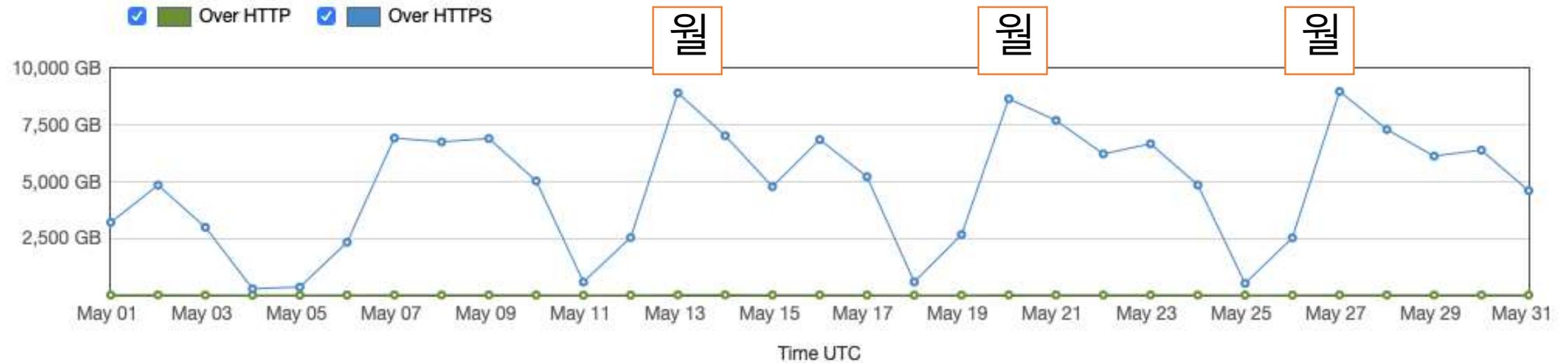
연도별 댓글 수



연도별 첨부파일 누적 용량



Data Transferred By Protocol [\(Gigabytes | Megabytes | Kilobytes\)](#) [Show Details](#)



Over HTTP	Total: 235.6254 GB	Average: 7.6008 GB	Minimum: 0.7219 GB	Maximum: 17.9649 GB
Over HTTPS	Total: 149,502.7884 GB	Average: 4,822.6706 GB	Minimum: 282.881 GB	Maximum: 8,987.2893 GB
All Data:	Total: 149,738.4138 GB	Average: 4,830.2714 GB	Minimum: 0.7219 GB	Maximum: 8,987.2893 G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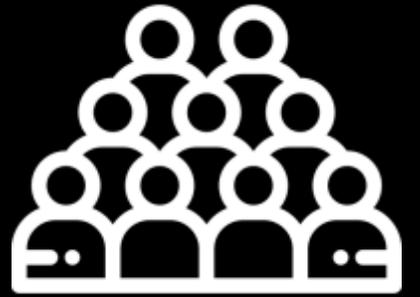


그림출처: 섭섭한 라이프
초등교사 송정섭

물리적 공간을 넘어

동료들과 앎을 나누고,

개개인의 지식이



세대를 넘어 전수되는 공유의 장

INDISCHOOL

이야기와
공감



INDISCHOOL

안전한

실험실





교사들의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공간

교사의, 교사에게 의한 교사를 위한 조직

참여자중심 서비스

현장을 기반으로 한 활동가

운영자이며

& 이용자 

— INDISCHOOL —

현장을 기반으로 한 활동가

개발자이며 & 사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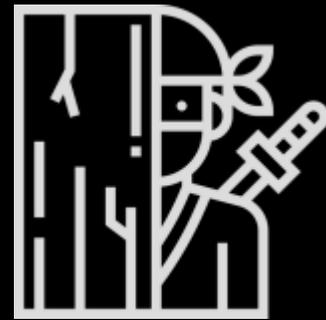
INDISCHOOL



현장을 기반으로 한 활동가

보이지 않는

& 운영자



INDISCHOOL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존재하는 사람들

햇반 / 도토리 / Mozart / 엔하늘 / 리누범...

우샘 / 행복한 김샘 / 단감나무

자발적 운영회비

인디스쿨의 존재 여부는
회원들에게 달려 있다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나에게 필요한 공간인가?

효율적인 의사소통 시스템



정례회의



온라인

사전안전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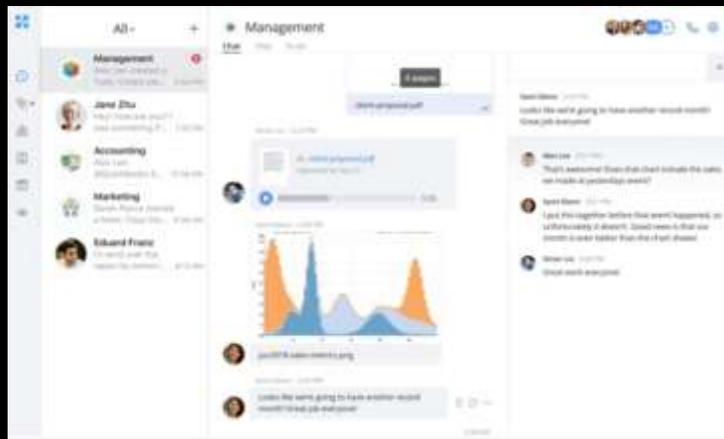


대면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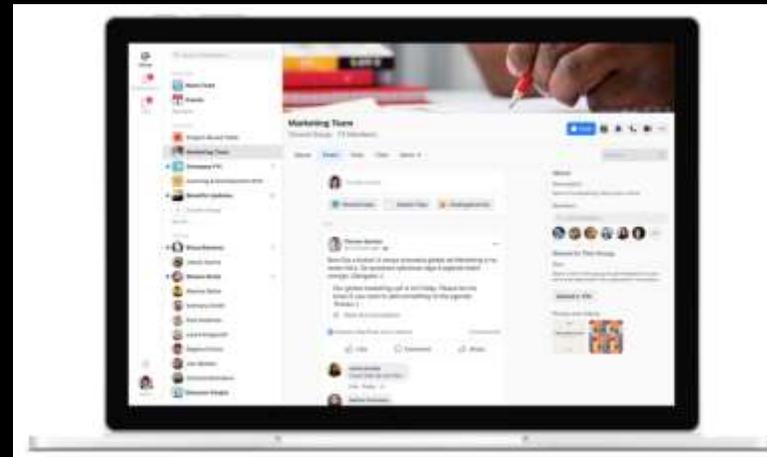
온라인
회의

Moxtra



2016

Workpl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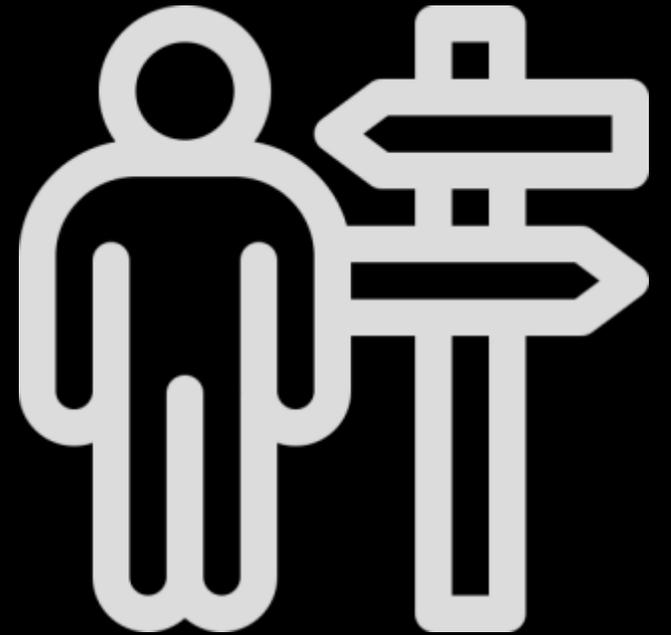
2018

Slack



2019-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Threads

Mentions & reactions

Drafts

Saved items

Channel browser

People & user groups

Apps

File browser

Show less

Channels

notion알림

random

대표회의

소셜미디어

일반

일상다반사

일정

전자결재

팀-기술연구

팀-조직경영

지출알림

Yesterday

N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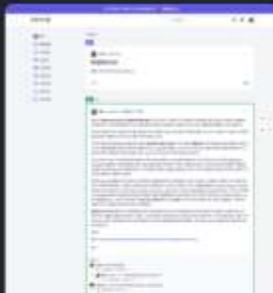
김재동 12:04 PM

합정 프로젝트에 지식참고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질문에 답변을 달 수 있음.
- 답변을 채택할 수 있음.
- 채택된 답변은 가장 위에 표시
- 나머지 답변은 좋아요 순으로 표시(질문자 채택 외에 일반 사용자가 답변을 채택하는 효과 있음)
- 답변에 댓글을 달 수 있음
- 채택답변수를 답변에 표시
- 프로필에 채택답변수 표시 -> 클릭하면 해당 사용자의 답변이 채택된 질문이 보임
- 질문 필터링(답변이 없는 질문, 답변 채택이 안 된 질문, 해결된 질문, 내 질문, 내가 답변한 질문, 내 답변이 채택된 질문)
- 답변 및 답변 채택 알림 발송
- 질문 및 답변 검색 등

오픈 며칠 전에 완성이 되어서 시간이 촉박하지만 테스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ㅎ

3 files



Message #대표회의





Slack

온라인 소통



Notion

아카이브

All-in-one workspace

Write, plan, get organized. Notion is — in one tool.

Get Started

For teams & individuals — Web, Mobile, Mac, Windows.



Notes, Docs



Knowledge Base



Tasks, Projects



Databases

An illustration in a black and white, high-contrast style. Three people are seated at a desk. On the left, a man with glasses and a dark shirt looks towards the center. In the middle, a man with glasses and a light-colored shirt looks down at a laptop. On the right, a woman with glasses and a dark shirt looks towards the center. A laptop is open in front of the man in the middle. To the right of the laptop is a stack of books. The background has a diagonal hatching pattern. The text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조직' is overlaid in the center in a large, bold, white font with a black outline. There are small decorative elements: a blue star on the left, a red diamond and a blue diamond on the right, and several short black lines radiating from the central text area.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조직**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 기획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학습하는 운영진

: 인디스쿨 운영진의 조직 경영 스터디

다른 비영리 조직의 사례,

민주적인 문화와 의사결정에 관한 공부모임



인디스쿨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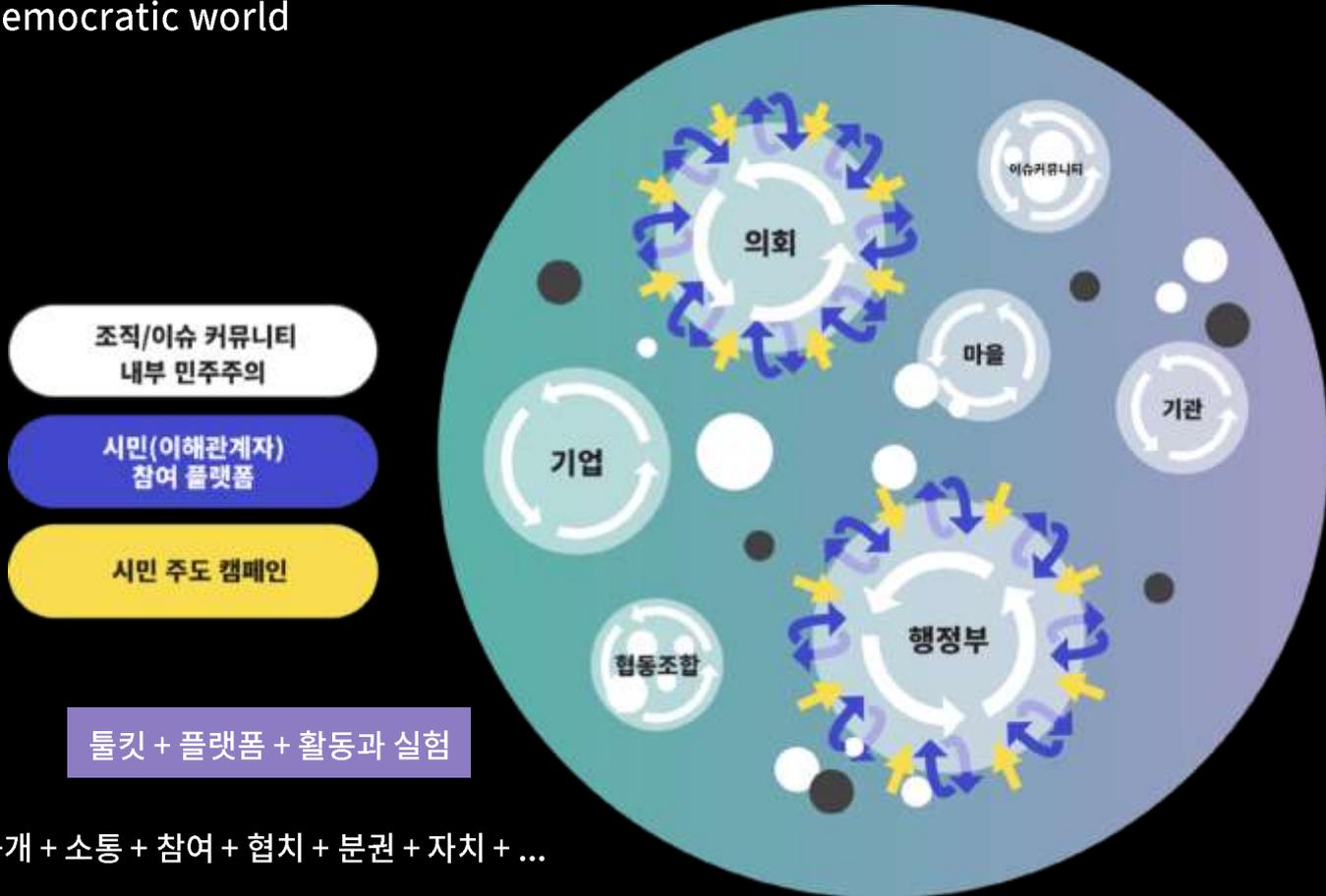
시도와 나눔 다양성과 공감 재미와 열정 연결과 연대

Parti

민주주의 활동가 협동조합, 빠띠

더 민주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한 빠띠의 활동 영역

For a more democratic world



빠띠의 조직 - 민주주의 기반 공공재를 함께 만드는 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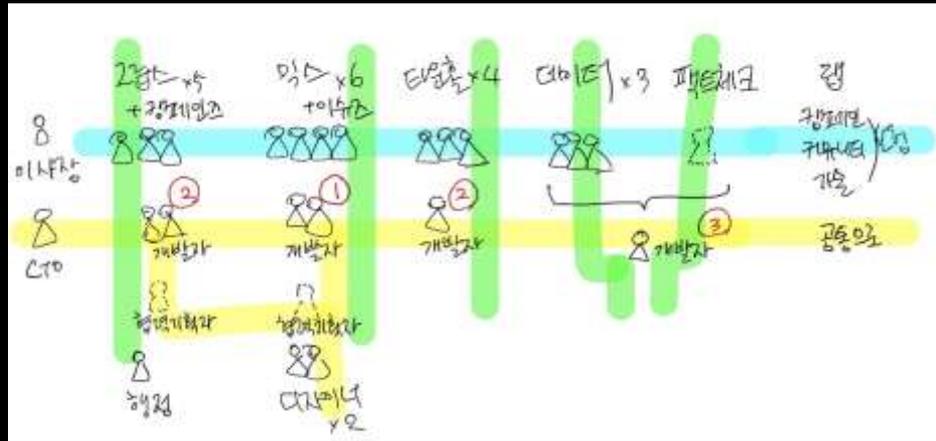
가능하게 만들기
 어떤 기술혁신이든 시장이
 요구하지 않는 곳이면...
 ▶ 100% 팀원 100%

대중의 열정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 100% 팀원 100%

협대역
 다양한 팀을 아우르는 크로스
 팀 협업 문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 100% 팀원 100%

공공성 강화
 이 모든 혁신을 만드는 진정한
 동력은 공공성입니다.
 ▶ 100% 팀원 100%

민주주의 스토리텔러
 민주주의에 필요한 모든 사회적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100% 팀원 100%



빠띠의 민주주의 플랫폼 - 디지털 민주주의 인프라 구축

Parti Democracy Platforms - IT Infrastructures for Democracy

빠띠 그룹스



팀과 커뮤니티를 위한
민주주의 플랫폼

빠띠 믹스



일상의 공론장 플랫폼

빠띠 타운홀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 미팅을
위한 실시간 토론 플랫폼

빠띠 데이터퍼블릭



시민주도
공익데이터 플랫폼

민주주의랩



세상을 바꾸는 시민들의
일상정치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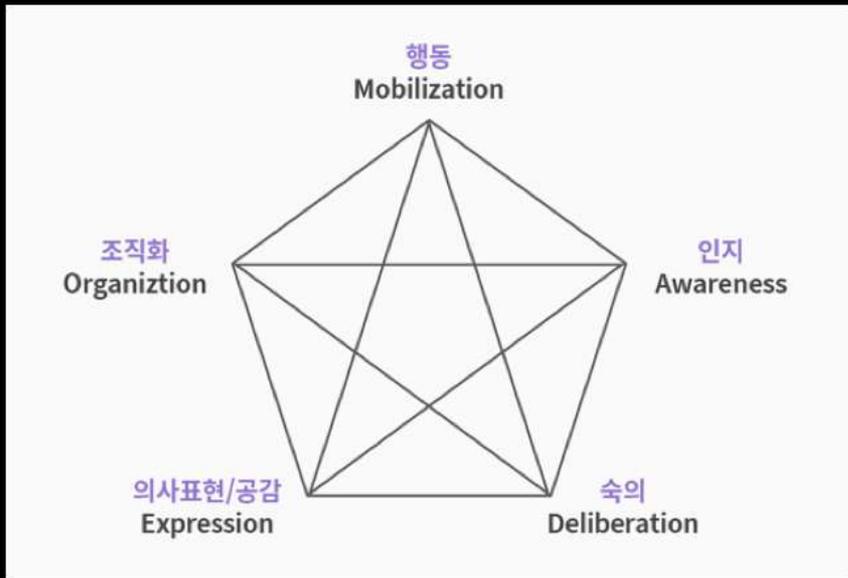
빠띠의 민주주의 툴킷 - 보편적으로 활용가능한

Parti Democracy Toolkits - New Ways of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for Democra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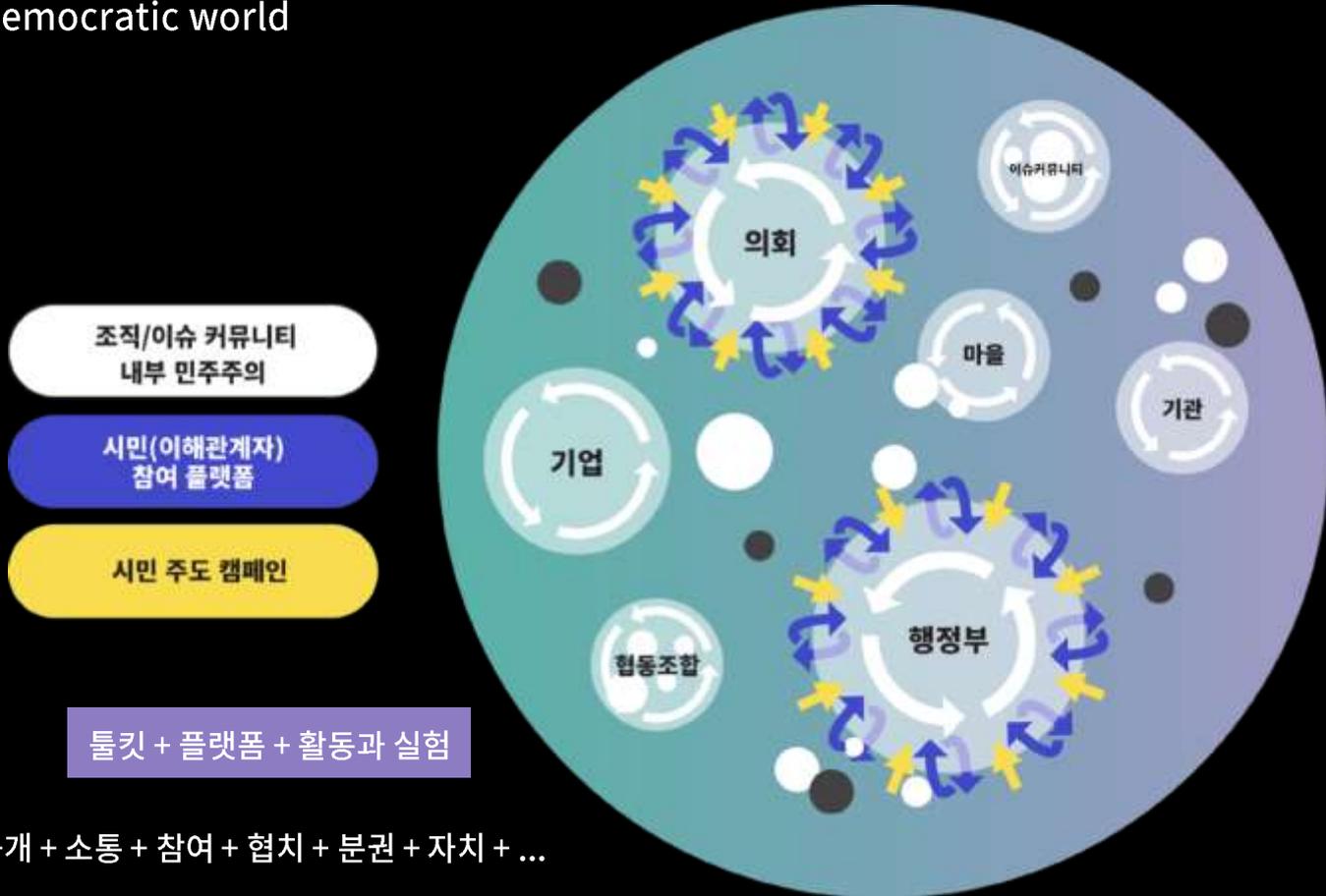
빠띠의 민주주의 - 시민이 직접 쉽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Parti Democracy Toolkits - New Ways of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for Democracy



더 민주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한 빠띠의 활동 영역

For a more democratic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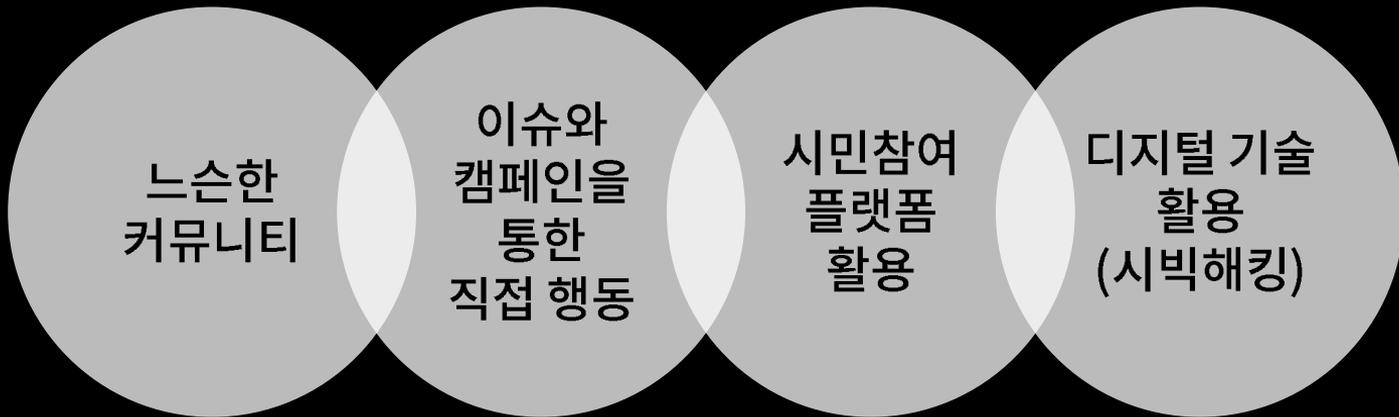
정보&데이터 공개 + 소통 + 참여 + 협치 + 분권 + 자치 + ...

빠띠의 민주주의 - 새로운 소통과 협업 방식에 기반한

Parti Democracy Toolkits - New Ways of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for Democra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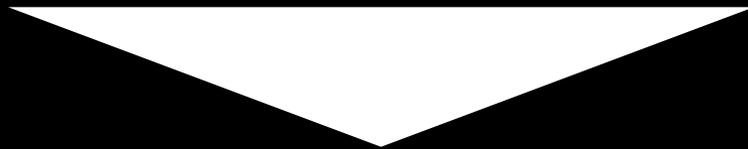
시민이 주도하는 사회 변화의 양상



시민의 기대

후원을 할테니 활동가가 대신..

내가 후원하고 있었나요?



작게라도 역할을 하고 싶다
(그렇지만 너무 바쁜...)

활동의 의미를 알고 싶고,
개인적인 의미도 갖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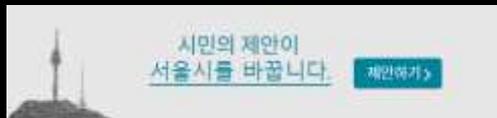
커뮤니티: 쓰레기 덕질 - 쓰레기덕후의 가상마을

제로웨이스트 실천에 관심있는 '쓰레기 덕후'들의 가상마을 커뮤니티

Toolkit: 커뮤니티 타운홀 미팅, 공동액션 디자인
Platform: 빠띠그룹스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 - 서울의 공론장



<p>민태규 님 2019.02.15</p> <p>어서와 서울은 처음이지?</p> <p>안녕하십니까 서울에 거주 중인 태극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어서와 한국은...'</p> <p>● 댓글: 26개</p> <p>● 공감(13명)</p> <p>500원</p>	<p>고재현 님 2019.03.29</p> <p>개포상상공작소를 지켜주세요.</p> <p>안녕하세요.동학구에 거주 중인 고재현이라고 합니다.19년 3월, 풍서힐동 힐 글...</p> <p>● 댓글: 28개</p> <p>● 공감(160명)</p> <p>500원</p>
--	--



<p>홍은환자 님 2019.03.26</p> <p>서울의료원 공공난임센터 신설을 반대합니다....</p> <p>서울시 우원재인 30여를 통하여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를 신설한다고 기사를 통해...</p> <p>● 댓글: 434개</p> <p>● 공감(163명)</p> <p>500원</p>	<p>익봉기 님 2019.05.27</p> <p>제로페이 활성화(월 1천억원 이상 사용액 ...</p> <p>직접만의 활성 시제를 제로페이 도입으로 부채하고(기발 동원), 제로페이 가맹점에...</p> <p>● 댓글: 4개</p> <p>● 공감(4명)</p> <p>50원</p>
--	---



2017년~2019년까지 서울시와 함께 시민참여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의 기획과 운영을 진행하며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공론장 운영 모델을 확립하였습니다.

Toolkit 시민제안 워크숍, 시민참여 공론장, 실험장, 찾아가는 시민제안, 공론 기획 및 선정, 타운홀 미팅

Platform 데모스X

공익 데이터 : 마스크 재고 데이터 공개

세계일보

2020년 03월 16일 월요일 011면 사회

마스크 재고 알림 앱도 ‘시민 집단지성’의 결실

약국 판매현황 등 각종 정보 알림
현직 개발자 모임서 정부에 제안
데이터 받아 30여개 무료 서비스
“집콕중 의미있는 일 하고파 사작”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으면서 정확한 정보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개발자 진태양씨)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개발자 김모씨)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를 알려주는 웹사이트에 이어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공적마스크 재고 알림 사이트는 시민들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15일 개발자들의 모임인 ‘코로나19 공

공데이터 공동대응팀(이하 공동대응팀)’에 따르면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공적마스크알림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이 30개가량 서비스되고 있다.

공동대응팀이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

를
진
스
(응
제
비
로
개
공
해
출
사
이
속
다.



영하고 있다.
마스크 재
고와 확진자
정보 등을 알
려주는 사이

던 마스크 공급 체계가 시민의 집단지성 발휘에 불을 댕긴 셈이다.
‘웨어 마스크’(where-mask.com·사진) 사이트를 만든 대학생 개발자 진씨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별첨1]
우리 모두 현장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 고생하시는 복지노동자 분들의 편의를 전합니다.
정부 서버 안정화를 위해 자료 영인문 08시 ~ 23시에 진행됩니다.



자본과 기술의 충격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누가 세상을 바꾸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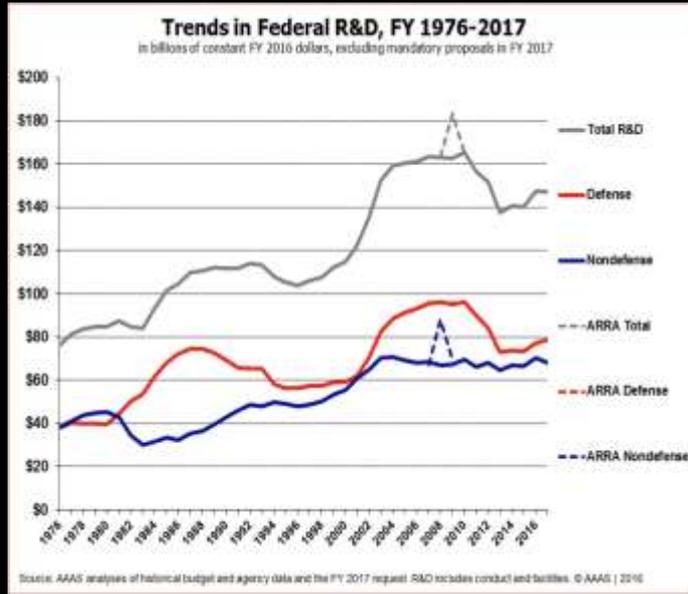
“기술 주권”이 필요한 시대

정부의 공공성이 더 중요해진 시대
시민 공공재와 시민 기술 주권의 중요성

“AI will create useless class” - 유발 하라리

자본과 기술의 충격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Impacts of Capital and Technology



“Google, Not the Government, Is Building the Future”
(New York Times 2017)

비영리 활동가와 '사회적 경제' 그리고 '디지털 역량'



Photo by Jason Leung on Unsplash



Photo by Tim Mossholder on Unsplash

수익과 역량에 대한 적절한 목표가 필요

비영리 활동가가 갖춰야 할 이 시대의 역량?

협업
커뮤니티
파트너십

스토리텔링
캠페인
공론장

적응력
적정한 목표
설정

가치
사회적가치
공공성

민주주의 플랫폼의 의미 - 신뢰하고 협력하는 사회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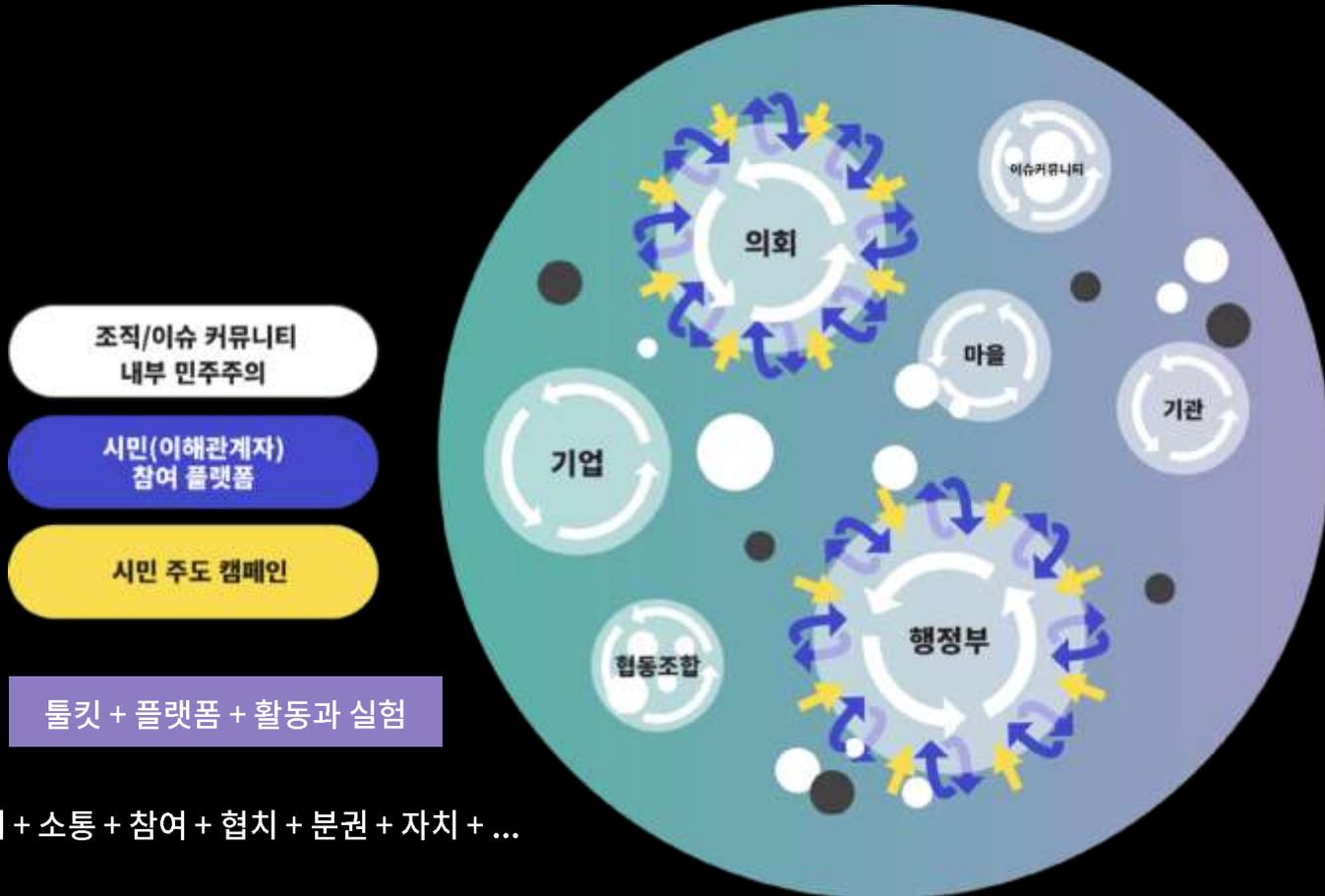
안전하게
이야기
하고

오해없이
이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합의하는

신뢰하고 협력하며, 자율과 분권이 작동하는 사회

민주주의 플랫폼의 의미 - 시민 권한의 확보를 통한 공공성 강화



빠띠의 민주주의 조직 - 공공재를 함께 만드는 협동조합

생산자
조합

소비자
조합

오픈소스

공공의 기술 플랫폼을 위한 빠띠의 전략

플랫폼 조합 + 오픈소스 = 공공재로서의 플랫폼
시민이 소유하고 시민이 운영하는 '기술 주권'의 실현

빠띠의 미션과 비전

Mission & Vision

민주적인 삶을 위한 생활 필수품

일상을 민주적으로, 세상을 민주적으로 만듭니다

Parti

Democracy More
parti.coop